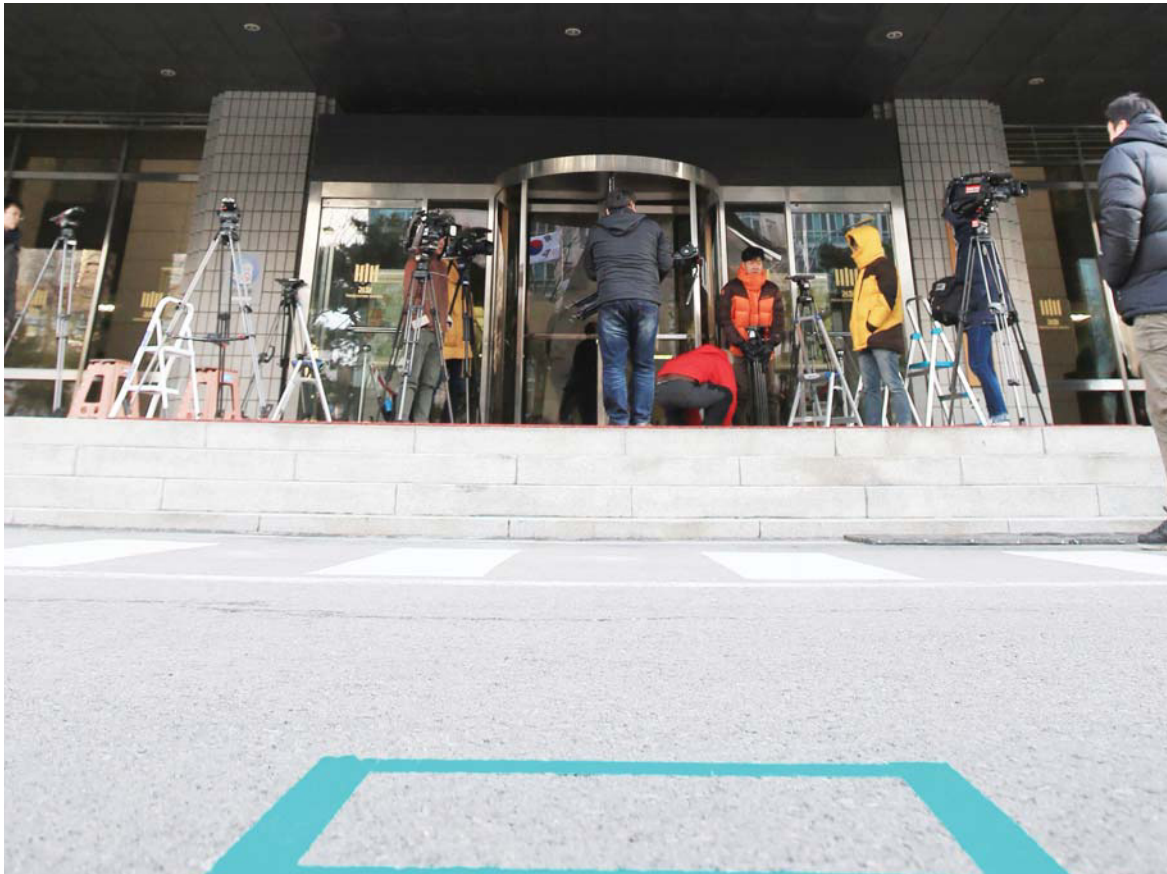
metro®

메트로 2014년 12월 17일 수요일 제3118호 www.metroseoul.co.kr

조현아 '검찰 고발'… 검찰 '포토라인' 취재 경쟁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이른바 대한항공의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운항정지등 행정조치 상황과 검찰 고발계획등을 발표하고 있다(왼쪽). 한편 17일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앞에서는 하루전인데도 취재진들이 포토라인을 정리하는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대한항공에 운항정지 or 과징금

항공보안법 위반 조현아 전 부사장 검찰에 고발
국토부 사건조사 부실 비판에 뒷북조치 지적도

'땅콩 회항'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6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전 부사장은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이륙 준비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에서 거짓진술 회유, 운항규정 위반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에 책임을 물어 운항정지나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경우, 거짓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의 위반에 해당된다.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 소홀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위반사항에 관해 법률자문 등을 거쳐 되도록 이른 시일에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계획이다.

운항규정 위반과 거짓 진술 회유, 허위진술 등 3가지에 대한 운항정지는 각각 7일씩 총 21일에 해당한다.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4억4000만원이다.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 액수는 5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보강조사에서 위법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운항정지는 원칙적으로 전 항공기나 해당 노선, 특정 항공기에 대해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노선 운항정지가 이뤄진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인천~뉴욕 노선에서 상당기간 운항을 할 수 없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서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국토부는 탑승 당시 음주 논란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이 탑승 몇 시간 전에 와인 1~2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확인했다.

국토부는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기는 것과 별도로 대한항공의 행정처분을 위한 보강조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17일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경우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에 대해서만 판단했지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형법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나 '강요죄'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의 증거 인멸 지시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김두탁기자 kimdt@metroseoul.co.kr

포스코 印尼 고로제철소 폭발 사고

7명 부상… 사망자는 없어

동남아시아 철강 시장 공략을 위해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철강회사 크라카타우스틸과 합작해 인도네시아 자바섬 서부 반튼주 찔레곤에 건설한 포스코-크라카타우(Posco-Krakatau) 고로제철소에서 15일 오후 1시(현지시간)께 폭발사고가 발생해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포스코 관계자는 16일 "쇳물을 부어넣는 전도공정 과정에서 수분이 들어가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수습은 물론 공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크라카타우 노동자 대표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고는 기계가 쇳물을 컨버터로 부을 때 발생했다. 통상적으로는 (이 과정이) 잘 진행됐다"며 "폭발이 상당히 컸지만 사망자는 없다. 부상자 한명이 신체 70%이상 화상을 입어 자카르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전했다.

공장 인근 주민은 "폭발이 컸다. 폭발 후 화학 약품 냄새와 함께 공장에서 나오는 큰 연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포스코-크라카타우는 포스코와 크라카타우스틸이 70대 30의 비율로 30억 달러를 투자해 준공한 회사다. 2010년 연간 300만t 생산규모로 준공 첫삽을 뜬 후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상업 가동을 시작했다. 일본의 텃밭과도 같은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지어진 고로제철소로 주목을 받았다. /김민준기자 mjkim@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외교부, 주한 ASEAN대사 간담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주한 ASEAN대사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만 미행설' 허위 가닥

검찰 진원지 추적… 실체 규명 이달 마무리

권력 암투설을 촉발했던 '정윤회씨의 박지만 미행설'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진원지를 추적하고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15일 청와대 문건 유출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박지만 EG회장은 자신을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가 미행 사실을 자백했고 자술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자술서 존재를 부인하며 본인 스스로 미행 의혹을 제기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그동안 권력 암투설, 미행설 등과 관련해 굳게 입을 다물며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지만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으로 파문이 일면서 사실 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이 커지자 소환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0시간 가까이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휴식도 없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사저널은 올해 3월 넷째 주에 발간한 1275호에 '박지만 "정윤회가 나를 미행했다"'라는 표지 기사를 싣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박 회장이 자신을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를 잡아 정씨가 지시했다는 진술서를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박 회장은 이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은 적도 없고 자술서를 갖고 있지도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윤회씨가 시사저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사실 관계 규명은 이달 안에 청와대 문건 유출을 수사 중인 형사1부, 특수2부 수사팀에서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시사저널 기사에도 박관천 경정,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등장하는 점에 비춰 미행설 역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과 비슷한 경로를 밟아 정치권을 거쳐 확산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서울 한복판 IS 테러?

기자 수첩

조 선 미 <글로벌부 기자>

15일 호주에서 발생한 인질극으로 호주 사회는 물론 지구촌이 발칵 뒤집혔다. 범인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IS)의 추종자였다. 한국은 'IS 테러'에서 안전할까.

IS 대원들은 지난 몇 달간 미국인 기자들을 잇따라 살해하며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이번엔 한 추종자가 시드니 도심의 카페로 들어갔다. 이란 출신의 50대 남성으로 40여 명을 인질로 붙잡았다. 인질 중에는 한국계 여대생 배모씨도 있었다. 카페에서 일하던 배씨는 다행히 탈출에 성공했다. 인질극은 1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범인을 포함해 3명이 숨졌다.

인질극이 발생한 곳은 시드니 금융중심가인 마틴플레이스다. 호주 중앙은행과 웨스트팩은행 등 주요 은행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이번 사건에서 2001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9·11 테러 현장이 떠오르는 건 왜 일까. 금융가에서 '알카에다의 형제'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IS는 2003년 알카에다의 하부 조직으로 창립됐다.

최근 IS와 추종 세력은 미국과 호주 등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서방 세력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국제연합전선을 구축, 이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데 대한 '보복 테러'다. 한국도 테러 무풍지대는 아니다. 미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IS 격퇴전'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모두 IS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현재 직·간접으로 국제연합전선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60여 개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시아 지역에 IS 연계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자칫 방심하다가 서울 한복판에서 끔찍한 인질극이 벌어질 지 모른다.

김무성, 리퍼트 주미대사 접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 대응과정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

박 대통령 "늘어나는 만큼 대처하는 역량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감지와 예측, 현장의 골든타임 활용을 극대화하는 구난, 총체적이고 신속한 사후 복구 등 재난 대응의 모든 과정을 과학 기술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난은 피할 수 없지만 인간의 조기 개입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난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재난 대응 역량의 핵심은 과학 기술"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재난 대응에 과학기술을 활용한 세계 각국의 사례를 들며 "우리도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면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기초부터 새로 짜고 있다"며 "앞으로 재난 안전 분야의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연구 성과를 재난 대응에 적극 활용하는 등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재난 안전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내 재난 대응 기술 기업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산학연이 함께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해서 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하고 경제 재도약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박지원 방북, 김정일 3주기 조화 전달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사진) 의원이 1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를 맞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명의의 조화를 전달하기 위해 방북했다.

이날 박 의원의 방북에는 김대중평화센터 윤철구 사무총장, 최경환 공보실장, 박한수 기획실장 등 7명이 함께 했다.

필리핀 아라우부대 파병 종료… 22일 귀환

● 필리핀에 파병된 아라우부대가 1년여의 임무 활동을 종료하고 오는 22일 귀환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6일 밝혔다.

아라우부대는 지난해 12월 27일 필리핀 레이테주에 파병돼 태풍 잔해물 제거, 도시기반 시설과 학교·공공 시설물 복구, 의료·방역 활동, 중장비직업학교와 한국어학교 운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北 1인당 총소득 138만원… 南 21분의 1

● 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38만원으로 남한의 21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이 국내외 북한 관련 통계를 수집해 발간한 '2014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2013년 기준)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GNI는 138만원으로 조사됐다. 남한은 2870만원으로 북한의 20.8배였다. 전년 20.3배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감사원, 해참총장 인사조치 요구키로

감사원이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당시 사업 책임자였던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쪽으로 내부 지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 통영함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총장이 구매 계약을 주도한 정황이 감사 결과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에 대해 황 총장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황 총장은 당시 사업관리실무위원장으로서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인수계약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의 납품업체 H사에 대한 평가 서류도 없이 구매 의결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황 총장은 H사에 대해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도 2차례나 늦춰주는 등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18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감사 결과 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조현정기자

'땅콩 회항' 조현아, 학교법인서도 '갑질'

무늬만 '이사' 최근 3회 이사회 참석률 '0'… 동생 조원태 이사도 같아

'땅콩 회항'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공 부사장직은 물론 계열사 등기이사와 계열사 대표 등 그룹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했지만 한진그룹에서 설립한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어 '꼼수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학교 법인에서도 '갑질'을 하며 교육기관 운영진이 가져야 할 책임감마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동생인 조현태 이사(현 대한항공 부사장)도 이 기간 단 한 차례도 법인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6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하 법인)에 따르면 이 법인은 올해 4월 11일과 5월 27일, 6월 26일 등 3회에 걸쳐 법인 이사회를 개최했다.

메트로신문이 입수한 법인의 최근 이사회 자료를 보면 조현아·조현태 남매 이사는 세 차례의 이사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나머지 15명 이사 중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들이 유일하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법인 이사 선임 ▲인하대학교 심뇌혈관센터 증축 ▲2013년도 정석인하학원 결산 심의 ▲법인 정관개정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특히 법인에 포함된 인하대학교·인하대병원·한국항공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인하부속고등학교·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인하부속중학교 등의 2013년 결산은 무려 7136억원에 달한다. 이 결산안을 처리하는 5월 27일 이사회에도 총 15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 중에 조양호 회장 등 12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만이 의결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들은 "일부 사립학교 법인들이 이사장이나 설립자의 친척들을 이사로 등재하는 것은 각종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본인들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하지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매처럼 아버지가 참석하는 이사회에 자녀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근 3차례의 이사회 가운데 단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양호 현 학교법인 이사장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조씨 가족이 학교법인과 이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고 혀를 내둘렀다.

이런 가운데 조현아 이사가 6년전 인하학원 이사회에서 무례한 언행으로 인하대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주장마저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당시 인하대 학내에선 교수 신규 채용 문제를 놓고 총장과 조 전 부사장의 의견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무례한 언행 때문에 총장이 사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제2롯데월드 쇼핑몰동 8층 콘서트홀 공사장에서 근로자 김모씨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16일 오후 관계자가 사고 현장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파란 울타리가 쳐진 곳이 김모씨가 추락한 위치이다. /연합뉴스

제2 롯데월드 또 사고… 공사장 인부 추락사

16일 오후 1시 5분께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쇼핑몰동 8층에서 일하던 김모(63)씨가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으며 발견 당시 숨이 멎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콘서트홀 내 설치된 비계에서 추락한 게 아니다"며 "쓰러진 김씨가 발견된 장소는 비계가 이미 철거 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망원인이 있을 수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 이병희 이사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확한 사망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 했다"며 "사망한 인부를 발견한 사람은 안전감시단으로 정확한 목격자는 없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인부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망한 인부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며 더 정확한 것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주영기자 boa@

한국화웨이, 한국장학재단에 1억원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과 한국화웨이(대표 켈빈 딩)는 지난 16일,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에서 공학계열 우수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기탁식을 가졌다.

이번 장학금은 세계적으로 유무선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한국화웨이가 국내 공학계열의 우수한 대학생을 지원·육성하여 국내 IT 환경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선발된 학생은 1000만원(1인 기준, 4학기 동안 학기당 2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한국화웨이 대표 켈빈 딩은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장 값진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한국화웨이는 앞으로도 국내 ICT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장학재단 곽병선 이사장은

16일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에서 한국장학재단 곽병선 이사장(오른쪽)과 한국화웨이 김학수 부사장(왼쪽)이 장학금 기탁식을 하고 있다.

"이번 기금은 국내 공학계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화웨이가 조성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화웨이 장학금의 선발 공고는 2015년 1월 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유주영기자

수능 '세계지리 오류'로 추가합격 629명

학교 이동 땐 혼란 우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로 성적 재산정에 따라 총 629명의 대학교 추가 합격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미 다른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연쇄적으로 학교를 옮길 경우 편입에 따른 학점 인정 등에서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이며, 하향 지원한 수험생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7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성적 정정에 따른 관련 대학별 추가합격 대상자를 집계한 결과 4년제 대학 430명, 전문대학 199명 등 모두 629명이라고 발표했다.

4년제 대학 추가합격 인원은 수시모집 107명, 정시모집 310명, 추가모집 13명이고 전문대학은 수시모집 1명, 정시모집 198명이다.

4년제 대학은 모두 121개교에서 추가 합격자가 나왔다.

서울 소재 대학 중에는 경기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연세대·서강대·성균관대에서는 추가 합격자가 한 명도 없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지리에 응시한 학생 3만7684명 중 오답 처리된 수험생은 1만8884명이다. 이 중 9073명(48%)의 등급이 한 단계씩 상승했다.

대학은 유선전화 등으로 17~19일 해당 학생들에게 추가합격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수능 세계지리 성적이 바뀐 학생은 17일 오후 2시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kcue.or.kr)에서 지난해에 지원했던 대학의 추가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정우기자 cyclone@

담배 '라이트·마일드' 못 써

앞으로 담뱃갑 포장지에 '라이트', '마일드' 등 건강에 덜 유해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게 할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단어로 '라이트', '연한', '마일드', '저타르', '순(純)'이 포함됐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와 도형, 그림 등으로 표시한 문구, 용어, 상표, 형상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담뱃갑 포장지 등에 허위·오도 단어를 사용해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이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데 따라 마련됐다. /유주영기자

씨스타가 성신여대 홍보

씨스타의 효린과 소유가 성신여대(총장 심화진)의 입학홍보에 나섰다. 효린과 소유는 각각 성신여대 미디어영상연기학과와 현대실용음악학과 12학번에 재학중이다.

효린과 소유는 홍보영상 '두근두근 성신'편에 직접 출연하는 한편, 전편의 나레이션을 맡았다.

이번 영상에는 씨스타 효린, 소유 외에도 연빛나(YTN 앵커), 김채리(유니버설발레단 솔리스트), 조신영(21사단 신병교육대대 교관), 김별이(삼성의료원 간호사), 김선아(성신 포러스 15기 회장)등이 함께 출연하여 예비 성신인들에게 성신만의 매력들을 선배의 입장에서 꼼꼼히 알렸다. /유주영기자

3D 프린터로 음식 만든다?

metro Russia

2045년 지구모습 예측

Через 30 лет сверхразум будет управлять планетой

최근 러시아의 보안전문업체 카스퍼스키 랩이 2045년 지구의 모습을 예측한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카스퍼스키 랩의 예브게니 카스페르스키 대표는 "30년 뒤 지구는 지금과 많이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에 공상과학 작가 세르게이 루키야넨코의 아이디어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예측 프로젝트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지구인의 구성 비율이다. 미래의 지구에는 수십억 명의 인간과 그와 비슷한 수의 로봇이 살게 된다. 특히 세계 각국은 전쟁에서 인간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로봇 군대를 운영한다.

또 다른 특징은 3D 프린터의 보급이다. 미래에는 지금처럼 마트에서 물과 음식 등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업그레이드 된 3D 프린터로 모든 것을 찍어낼 수 있다.

카스페르스키 대표는 "미래에는 단순히 겉모습만 똑같이 만들어내는 3D 프린터가 아니라 물체의 성분도 동일하게 만들어 내는 3D 프린터가 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봇이 집안 곳곳을 관리하는 '스마트 하우스'도 등장한다. 스마트 하우스에서는 거주자의 생활 리듬에 맞게 모든 것이 조절된다. 퇴근 시간에 맞춰 로봇이 요리를 하고 목욕물을 준비하는 식이다.

/이반 골로브첸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한겨울 털모자 착용 금지!

metro France

사립 중학교 규정 논란

dans un collège scandalise des parents d'élèves

프랑스 남부 도시 페르피냥의 한 가톨릭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털모자 착용을 금지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프랑스 지역 신문인 '렝데팡당'은 페르피냥의 망트농 사립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운동장에서의 털모자 착용을 금지했다. 해당 중학교의 내부 규칙에는 챙 달린 모자, 털모자, 머리를 가릴 수 있는 스카프 등 머리를 덮는 모든 것들을 착용할 수 없다는 항목이 명시돼 있다. 다니엘 로시뇰 교장은 이 규정을 직접 손으로 써놓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 학부모는 "교장의 아이도 마찬가지로 모자를 쓰기 위해서는 병원의 증명서를 받아오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왜 그런 확인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데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부당한 규직에 대한 거친 항의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펠릭스 듀퐁 기자·정리=정주리 인턴기자

문신으로 뒤덮인 산타 화제

metro Brazil

Bom Velhinho luta contra o preconceito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문신을 한 산타 클로스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비토르 마르칭스(59·광고업자)의 신체는 문신으로 가득하다. 그는 33세부터 타투를 시작해 현재 몸의 94%가 문신으로 뒤덮여있다.

백화점 등지에서 하얀 턱수염과 산타 클로스 복장을 하고 미소짓는 그의 몸에 형형 색색의 문신이 그려져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 특히 아이들에게는 말이다.

성탄절이 있는 12월은 산타 클로스에게 가장 바쁜 시기다. 그는 매일 아침 6시마다 어린이 TV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크리스마스 관련 행사에 나간다.

그러나 그는 문신으로 인한 편견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아픈 과거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문신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당한 적이 있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는 날 받아주긴 했지만 문신이 보이지 않도록 항상 가리고 다닌다. 부모님도 날 이해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정리=정자연 인턴기자

이념 강한 이란 태생 전과자

호주 인질극 범인 정체 드러나… 살해 공모 등 50건 기소

최근 호주 시드니 도심의 카페에서 인질극을 벌이다 사살된 만 하론 모니스(50). 그는 살해 공모 등 다수의 전과 경력이 있는 인물로 보석 상태였다.

16일 시드니모닝헤럴드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태생으로 1996년 호주로 건너온 모니스는 지난해 전처 살해 공모 등 50여 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모니스의 전처는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리고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모니스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망한 호주 군인 가족에게 공격적 내용의 서한을 보낸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의 변호사였던 매니 팬디치스는 "모니스는 이념이 강해 상식과 객관성을 흐리게 할 정도였다"며 "그가 심각한 범죄로 구금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인질극을 저질렀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테러 조직과 연계됐다기보다 모니스의 독자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 시드니 인질극 현장인 마틴플레이스의 카페 근처에서 16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헌화를 한 뒤 무릎을 꿇은 채 희생자를 애도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그러나 일각에서는 모니스가 '이슬람 국가'(IS) 등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을 추종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모니스는 이란에 있을 때는 대다수 이란인처럼 시아파로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한 달 전 자신의 홈페이지에 수니파로 개종했음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

모니스는 기행도 일삼았다. 자신을 흑마술을 사용하는 '영적 치유자'로 칭하는가 하면 비리 폭로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창업자인 줄리언 어산지에 비유했다.

한편 이번 인질극에서 시민 두 명이 사망, 세계인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현지 경찰은 진압 작전 도중 카페 매니저 토리 존슨(34)과 변호사 카트리나 도슨(38)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존슨은 인질범이 잠든 사이 총을 빼앗으려다가 총에 맞아 숨졌다. 존슨은 2012년 10월부터 이 카페에서 일했다.

또다른 희생자인 도슨은 임신한 친구를 보호하려다 인질범의 총에 맞았다. 도슨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누가 왔길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머과이어-딕스-레이크허스트 합동 기지를 방문, 장병들과 악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마약에 스트립바… 필리핀 호화 교도소 논란

필리핀의 강력 범죄조직 두목이 교도소에서 마약과 스트립쇼를 즐기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AFP 통신에 따르면 경찰 특공대는 마닐라 외곽의 빌리비드 교도소 단지를 급습했다. 교도소에서 마약, 현금, 스트립바 시설, 고급 욕조 등이 발견됐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최근 빌리비드 교도소 수감자들은 교정 당국에 뇌물을 주고 갖가지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 교도소에서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화려한 스트립 댄서들의 공연도 볼 수 있다.

단지 내 욕실 바닥과 벽은 대리석으로 치장됐고 고급 욕조에는 평면TV까지 설치됐다. 한 금고에는 로렉스 시계와 루이뷔통 지갑 등 고가 명품과 달러화 뭉치, 고급 양주가 가득하다.

레일라 데 리마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 "교도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급습 작전을 펼쳤다"며 "형을 살려고 온 죄수가 왕이 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 수감자들과 결탁한 관리들을 즉각 파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목소리 하나로 ‘모임 주인공’ 될수있죠”

이국명 기자의 취업토크

우지은 W스피치 대표

복식호흡·공명법 연습이 큰도움
운율·리듬감으로 둥글게 말해야
‘T-E-C 법칙’ 멋진 건배사 OK

“T(Thank you), E(Episode), C(Cheers) 법칙만 알고 있어도 연말 모임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모임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짧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3행시로 만들어 힘차게 건배를 제의하면 되죠. ‘진달래’(진하고 달콤한 내일을 위해), ‘재건축’(재미있고 건강하게 축복하며 살자) 등과 같은 유행하는 건배사에 의미를 붙이면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최초의 보이스컨설턴트이자 ‘목소리 누구나 바꿀 수 있다’의 저자인 우지은 W스피치커뮤니케이션 대표는 건배사 제의를 받으면 피하지 말고 부딪치라고 충고했다. 떨리거나 작고 거친 목소리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노하우만 알면 멋진 건배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내는 방법까지 배운다면 숨겨왔던 자신만의 끼도 한껏 드러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목에 지나친 힘을 주는 등 잘못된 발성습관을 지니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직장인이나 구직자들이 많습니다. 좋아하는 스타를 흉내 내면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죠. 좋은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접할 기회조차 없었던 탓입니다.”

◆세련된 목소리로 자심감도 쑥쑥

우 대표는 좋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비법을 살짝 공개했다.

우선 건강하고 윤기 있는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복식호흡부터 연습해야 한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신 공기를 아랫배로 내려 보냈다가 입으로 ‘프~’하면서 내쉬는 것이 요령이다. 배꼽에서 5~7cm 아래 지점인 단전에 양손을 대봤을 때 움직임이 느껴지면 성공이다.

부드럽게 감싸는 목소리를 내는 마스크 공명법도 연습하는 것이 좋다. 입안에 사탕 하나를 문다고 생각하고 입 주변으로 소리를 모아 ‘음~~~’하며 허밍을 하듯 소리를 내면 된다. 손으로 코와 입 주변을 만졌을 때 부드럽게 울리는 진동이 느껴져야 한다.

목을 아치 상태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목의 아치가 둥글고 넓으면 입안에 많은 공기가 들어가 맑은 목소리를 만들 수 있다. 하품할 때를 떠올리면서 연습하면 쉽다.

이후에는 신문을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좋다. 이때 모음만 떼내서 읽은 후 자음을 붙여 있는 것을 반복하면 보다 명확한 발음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메트로신문’을 모음만 ‘에으오이우’로 읽은 후 다시 ‘메트로신문’으로 제대로 발음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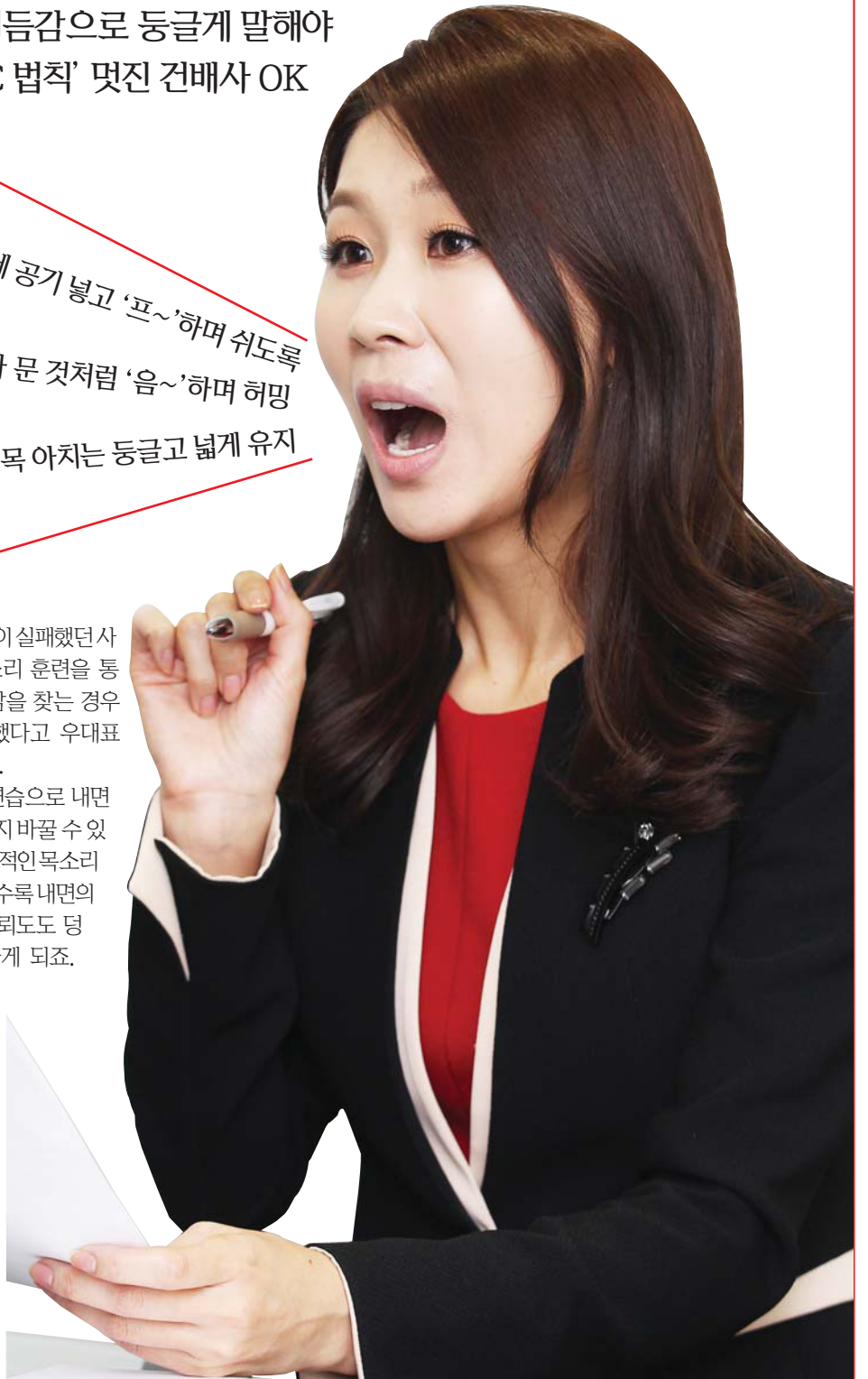
의미 단위별로 끊어 읽는 것도 필요하다. 운율과 리듬감을 넣어 둥글게 말하는 것을 반복해야 한다.

“이같은 연습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목소리가 세련되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중의 주의를 끄는 것은 물론 설득력도 높일 수 있죠. 부족했던 자신감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내면 이미지도 변신 가능

우 대표는 시각적인 외모보다 목소리가 첫인상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면접은 물론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좋은 목소리는 성공을 가져다준다는 설명이다. 구직이나 승진은 물론 연애에서 번번이 실패했던 사람들도 목소리 훈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는 경우를 많이 접했다고 우대표는 강조했다.

“목소리 연습으로 내면의 이미지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목소리로 가꾸어질수록 내면의 자신감과 신뢰도도 덩달아 상승하게 되죠. 올 연말 모임에서 연습한 목소리를 시험해 본다면 목소리가 지닌 막강한 파워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kmlee@

외국어1위 영단기의 인재양성서비스 ‘취업단기’가 함께하는 생생한 취업Q&A

인문학적 소양 갖춘 이공계 각광

Q 이공계생은 내년 취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A 이공계 선호 현상은 내년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취업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공계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이공계 학생’이 되는 것 입니다. 삼성의 경우 2014년 하반기 채용부터 인문-자연 통섭 인재를 위한 전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현대차그룹도 채용과정에 역사에세이를 도입하고 있죠. 따라서 평소 독서를 통해 관련 지식을 쌓는다거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많은 이공계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자소서를 준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금융감독원에 올라와있는 각 기업의 분기보고서를 정독하는 것과 현직자를 통한 정보 습득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업’을 알고 ‘회사 용어’를 익히고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So what?’도 고민해야 합니다. 사실만 나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면에 숨겨져 있는 뜻을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나열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공계 학생이라도 영어는 잘 할수록 좋습니다. 모든 기업이 글로벌화되며 다양한 국가와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원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것을 혼자의 힘으로 했다고 적는 것입니다. 회사는 공동체입니다. 배움의 태도로 함께 일을 해결했다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취업단기(www.engdangi.com/job) 제공

정리=이국명기자

구직자는 ‘간난신고’(艱難辛苦) 직장인은 ‘다사다망’(多事多忙)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604명, 직장인 7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 한해를 축약하는 사자성어’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구직자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로는 몹시 힘든 고생을 뜻하는 ‘간난신고(艱難辛苦)’(15.6%)가 선정됐다.

이어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전전반측(輾轉反側)’(10.9%), 온갖 애를 썼지만 보람이 없다는 뜻의 ‘노이무공(勞而無功)’(10.6%),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의 ‘고조불탄(古調不彈)’(9.1%), 아무런 의욕없이 한 해를 보냈다는 ‘고목사회(枯木死灰)’(6.8%)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직장인 부문에서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음을 뜻하는 ‘다사다망(多事多忙)’(13.5%)이 1위에 올랐다. 2위는 ‘간난신고’(12.8%), 3위는 ‘노이무공’(10.9%)이었다. 이밖에 있는 힘을 다 해 노력했다는 ‘분골쇄신(粉骨碎身)’(5.3%), 수중에 가진 돈이 하나도 없다는 ‘수무분전(手無分錢)’(4.6%) 등이 직장인의 공감을 얻은 사자성어로 선정됐다.

/정윤희기자 unique@

market index <16일>

코스피 1904.13 (−16.23)
코스닥 534.15 (−3.94)

금리(국고채 3년) 2.13 (+0.01)
환율(원·달러) 1084.70 (−14.40)

일본 와이파이 자동로밍 확대 KT는 일본 내 와이파이 자동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핫스팟 지역을 기존 3만개소에서 12만개소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KT 제공

쿠키런 150억회 플레이

인기 모바일 게임 '쿠키런'이 전세계 누적 플레이 150억회를 돌파했다.

데브시스터즈는 지난해 4월 출시된 '쿠키런'의 전세계 누적 다운로드 수가 6500만건, 누적 플레이 수 150억회를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쿠키런'은 일본, 대만, 태국 등을 포함한 10개 국가에서 무료 다운로드 인기 1위를 기록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 150억회 플레이 돌파 기념 이벤트를 31일까지 진행한다. /장윤희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60세 정년 의무화…바빠진 기업들

75%가 임금피크제 계획 세대간 일자리경쟁 예고

300인 이상 대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행되면 임금피크제 등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전망이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정년 60세와 노동시장 변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대기업은 10곳 중 6곳이었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평균 58.2세였고 구체적으로 보면 60세 이상 28.7%, 55세 23.2%, 58세 22.7%, 57세 12.2% 순이었다.

대다수 근로자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기업은 59.1%였고 명예퇴직 등으로 규정된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는 기업이 21.5%, 정년을 거의 채우지 못하는 기업 16.6%, 무응답 2.8%였다.

60세 정년의무화가 시행되면 75.7%의 기업이 임금피크제나 전반적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년인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되 만 57세가 되는 해부터 1년차에는 원래 받던 임금의 75%, 2년차에는 55%, 3년차에는 35%를 받는 방식이다. 대신 만 57세가 되면 퇴직금을 받은 뒤 별정직 등으로 일하게 된다.

◆아빠와 아들의 일자리 싸움

다만 60세 정년 의무화가 젊은이들의 취업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일자리를 놓고 '세대간 경쟁'이 예상된다.

즉 60세까지 일하는 아버지가 늘면서 30세 전후인 아들·딸이 신입사원이 되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가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32.6%가 '매우 부정적', 39.8%가 '다소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기업 10곳 중 7곳이 신규채용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본 셈이다. '별 영향없음'이라고 밝힌 업체는 26.0%에 그쳤다.

전경련 이철행 고용노사팀장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근로자 10명 중 4명 정도가 정년을 채우지 못했었는데 2016년부터 모든 근로자가 정년까지 근무하게 됨에 따라 신입직원을 뽑을 TO(일정 규정에 기반한 인원)가 없어지고 인건비가 늘어나게 됐다. 2016년 2월 졸업생부터는 힘든 취업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남아도는 우유… 11년 만에 감산 올해 들어 부쩍 늘어난 우유를 처리할 수 없어 국내 유가공업계가 11년 만에 원유 생산 감산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뉴시스

'미생' 드라마 타고 광고 '완생'

기업마다 마케팅 열풍

드라마는 미생(未生), 광고는 완생(完生).

20일 종영을 앞둔 tvN 직장 드라마 '미생'이 시청률 고공행진을 기록하면서 '미생' 마케팅이 가열되고 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미생'의 평균 시청률은 8.0%, 최고 시청률은 9.5%로 웬만한 공중파 시청 수치를 뛰어 넘는다.

콘텐츠 흥행 지표인 광고업계에서 '미생' 출연진은 인기 광고 모델로 떠올랐다. 드라마 주요 소재가 직장인의 애환이란 점에서 직장인을 주요 소비층으로 삼는 기업의 행보가 발빠르다.

SK텔레콤은 미생 드라마 장면을 광고에 그대로 활용했다. '100년의 편지' 캠페인 영상에서 계약직 직원과 직장 상사가 서로에게 편지 쓰는 모습을 소개한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미생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가 그대로 광고 몰입으로 연결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드라마에서 김 대리역으로 열연한 김대명(34)을 가족 결합 할인 요금제 공중파 단독 모델로도 기용해 화제를 모았다. SK텔레콤이 첫 광고였던 김대명은 G마켓 후속 모델에도 발탁됐다.

게임 기업 쿤룬코리아는 자사의 신년 첫 3D 액션 모바일 게임 '크러쉬 온 액션'의 홍보 모델로 '미생' 여자 주인공 강소라(24)를 발탁했다. 김혜진 쿤룬코리아 마케팅 팀장은 "드라마에서 보여 준 강소라의 연기가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회사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강소라가 조율 중인 광고는 10개가 넘는다. 남자 주인공 장그래 역의 임시완(26)은 직장인 겨냥 식음료 광고에 출연하고 있다. 그가 계약하거나 검토 중인 광고는 20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T업계뿐 아니라 유통 업계도 '미생' 마케팅이 거세다.

편의점 GS25는 판권 계약을 통한 미생 캐릭터 상품 출시로 전년대비 77%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미생 종이컵' 매출액은 92%, '미생 투명 맥주컵'은 55% 늘었고, 캐릭터 노트와 이력서 판매도 각각 48%, 32% 증가했다. 특히 전체 판매량의 70%가량이 사무실 밀집 상권에서 팔렸을 정도로 직장인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오차장으로 열연하는 이성민(46)은 하이트 맥주, 사원 한석율로 등장하는 변요한(28)은 미스터피자 신규 광고 모델로 전파를 타고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

스마트폰 사용 일평균 3시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게임 콘텐츠가 스마트폰 이용시간 확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16일 KT경제경영연구소가 내놓은 '스마트폰 도입 5년, 모바일 라이프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한국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219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년 3월(91분) 대비 2.4배 증가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카카오톡 게임하기' 오픈 이후 급증했다. 실제 흔히 출퇴근·등하교 길 대중교통 이용 시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라인 등 커뮤니케이션 뿐 아니라 각종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스마트폰 이용시간 중 모바일 웹서핑이 15%를 차지했고, 그 외 각종 앱 이용률이 85%를 점유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하루 평균 281분으로 가장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했다. 이어 10대 이하 239분, 30대 220분, 40대 189분, 50대 151분 순이었다. 10~20대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용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30~40대는 모바일 게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류성일 KT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스마트폰 도입으로 우리 생활이 전반적으로 편리해졌지만 명상·휴식을 하거나 책·잡지·신문을 읽는 시간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재영기자 ljy0403@

HEARTMADE
진심을 담은 성수동 수제화
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
장인의 숨결이 한자리에…
수제구두의 멋에 빠져볼까?
성수역에 가면 장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수제화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성수
수제화 테마역
1 구두와 장인
1 SSST 매장
1 from SS 매장
2 장애인 수제화 매장
장애인용 수제화 판매장 개장
www.seongsu.shoes
구두와장인
Shoe & Artisan
SSST
from S
SEONGSU

카드·보험사 손잡기 경쟁…"고객 속으로"

신한·우리·KB국민카드 등…혜택은 늘리고, 요금은 할인

최근 카드사들이 보험사와 손잡고 보험료 할인과 카드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특화 카드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수수료율 조정 등 갈등보다 영업망 확충과 고객의 보험료 부담 감소, 편리한 납부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삼성화재와 함께 자가운전자를 위한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 GS칼텍스 신한카드 Shine'을 내놨다.

이는 자동차 보험료와 주유 할인 등을 주력 서비스로 제공하며,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를 20만원 이상 결제하면 10%(최대 3만원)를 결제일에 할인해 준다.

또한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GS칼텍스 주유소에서 주유 시 리터당 최고 100원이 할인되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사 제공

롯데월드와 서울랜드, 에버랜드의 자유이용권 본인 50% 할인 등 테마파크 할인 서비스와 맥스무비, 인터파크, YES24를 통한 영화 예매 시 할인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라이나생명과 제휴를 맺고 보험료 할인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나생명라서즐거운카드'(이하 '라카드')를 출시했다.

'라카드'는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라이나생명의 월 보험료를 최대 3만원씩,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할인해준다.

이는 전월 실적 30만원, 7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상 결제 시 매월 1만원, 1만 5000원, 2만원, 3만원을 보험료 카드결제 금액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 고객이 라이나생명의 '라이나OK암보험-2형'에 가입하고 해당카드로 전월 100만원을 결제할 경우 고객은 월 보험료 2만7300원 중 2만원을 할인받고 73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영화관과 커피전문점, 놀이공원, 패밀리레스토랑 할인 등의 다양한 부가혜택도 누릴 수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가나다 시리즈로 카드를 개발하면서 역점을 둔 부분이 고객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혜택을 더욱 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는 동부화재와 손잡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이 담긴 '동부화재 KB국민카드'를 선보였다.

이는 보험료와 주유 할인에 생활밀착형 할인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자동차 보유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동부화재의 자동차 보험료를 1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연 최대 3만원까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생명보험사도 보험 전용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KDB생명과 OK캐쉬백, 롯데카드가 함께 내놓은 다이렉트보험 전용 신용카드 'KDB다이렉트보험 P+410'이 바로 그것.

KDB다이렉트보험 월 보험료를 결제시 매월 OK캐쉬백 포인트 4000점을 지급하고, 적립된 OK캐쉬백 포인트를 합쳐 현금으로 돌려준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국민銀, 연금저축보험 인터넷 판매

KB국민은행이 17일부터 영업점 창구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던 '연금저축보험'을 인터넷뱅킹 거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 출시된 'e-연금저축손해보험삼성명품연금보험'은 국민연금 수령전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기 위한 노후대비 금융상품이다. 매년 연말 정산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이다. 납입보험료 최대 400만원을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인 52만8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3.3%~5.5%)도 공제해 준다.

가입대상(인터넷)은 만 19세부터 75세, 월 보험료는 5~50만원까지 1000원 단위로 5~20년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적용으로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유배당 상품으로 추가 수익까지 향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단 연금 이외의 수령시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차감돼 피해를 볼 수 있다.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유지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minji@

VIP 초청 송년 음악회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15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2200여 명의 그룹 내 VIP 고객들을 초청해 '2014년 하나금융그룹 VIP 초청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김한조 한국외환은행 은행장(오른쪽 첫번째),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오른쪽 두번째) 김병호 하나은행 은행장 직무 대행(오른쪽 여섯번째), 장승철 하나대투증권 사장(오른쪽 일곱번째). /하나금융그룹 제공

최대 연 11.40% ELS 등 11종 판매

KDB대우증권은 16일부터 ELS 5종, DLS 4종, DLB 1종을 총 1900억원 규모로 판매하며 오는 17일부터는 특판 상품인 공모 ELB 663회를 1000억원 한도로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제12168회 HSCEI-EuroStoxx50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는 만기 3년, 6개월 자동조기상환 상품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가격의 95%(6·12개월), 90%(18·24개월), 85%(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11.40% 수익을 제공한다.

조기상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투자 기간 중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만기에 연 11.40%의 수익을 지급한다.

특판으로 한정 판매하는 '제663회 원금보장형 ELB' 상품은 3개월(96일) 만기 상품으로 만기평가 가격에 따라 최소 연 3.26%에서 최대 연 3.27%의 수익을 지급한다.

이번 ELS는 오는 18일까지, 특판 ELB 및 DLS/DLB는 19일 오전 11시까지 최소 1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청약할 수 있다.

/김현정기자 hjkim1@

'카드슈랑스 25% 룰' 2016년까지 유예

중소사 한숨 돌려…정보유출 등 위험요소 산재

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 보험사 상품의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카드슈랑스 25%룰'을 2016년까지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사를 중심으로 한 카드슈랑스 채널이 당분간 확대될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현재 중소사 2~3곳만 신용카드사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규제 준수가 곤란해 해당 규제를 2016년 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또 카드슈랑스의 경우 은행창구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와 달리 텔레마케터를 이용해 판매하는 등 모집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시행일 이후 2개월내에 금융위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자사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성장했다.

실제로 카드슈랑스 규모는 지난 2005년 3752억원에서 지난해 1조6631억원으로 4배 이상 성장했다.

반면 해당 제도 유예에도 카드슈랑스는 위험요소가 산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올 초 정부가 카드사 정보유출에 따른 텔레마케팅(TM)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면서 지난 1분기 카드슈랑스 판매액은 지난해보다 24.8% 줄어든 3219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신한·롯데 등7개 신용카드사와 삼성·동부화재동양생명 등 10개사의 카드슈랑스 계약 11만건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와 보험사는 지난 10월 해당 계약 중 청약 후 3개월 내 해지된 계약(품질보증해지기간)건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보험업 개정안에는 보험회사의 창업·벤처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도 자산운용 규제 예외 자회사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형석기자 khs84041@

개장 한 달…"갈 길 멀다"

내년 50개 신규 상장 전망, 활성화 기대

issue&view
ETN시장 성적표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새로운 먹거리인 상장지수증권(ETN) 시장이 개설 한 달을 맞았다. 초기 성적표를 내 본 결과, 거래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증권사들이 내년 공격적인 신규 상장 계획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ETN 시장의 조기 정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문을 연 ETN 시장에는 현재 10종목이 거래되고 있다.

연내 미래에셋증권이 '미국자사주매입기업 ETN' 상장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내년 증권사들이 최소 50개 이상의 신규 상장을 목표하고 있어 종목 수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ETN 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거래소에 따르면 ETN 시장의 하루평균거래대금은 지난 9일 기준으로 1억원 안팎에 불과했다.

그나마 거래 1~2주차에는 1억원을 웃돌았으나 3~4주차 들어선 각각 5000만원, 7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 유동성 공급자(LP) 역할을 하는 발행 증권사들(49.8%)과 개인투자자(50.1%)가 거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의 판을 키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외국인의 참여는 0.2%에 불과했고 기관의 참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거래소와 증권사들은 특히 기관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원대 거래소 부이사장은 "내년 ETN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해외로 빠지는 기관투자자의 발길을 돌려 국내에 머물도록 하고자 한다"며 "연기금 등 대형 기관투자자의 초창기 참여가 어렵다면 소규모 공모펀드 중심으로 투자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최대한 많은 종목이 상장돼야 히트작이 나와 기관의 투자 풀에 들 수 있을 것"이라며 당국의 지원을 당부했다.

ETN의 초기 수익률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경쟁력은 입증됐다고 증권사들은 자평했다.

현재 2종목을 상장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ETN이 ETF보다 성과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하락 장세 속에 '트루 코스피선물매도 풋매도 ETN'은 최근 2주간 수익률이 3.91%로 전체 ETN 10종목 중에서 성과가 가장 좋았으며, 유사한 인버스 ETF(2.82%)의 수익률을 1%포인트가량 웃돌았다.

이에 더해 내년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나 A주 등 본토지수와 홍콩H지수를 포함, 해외 섹터·레버리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N이 선보이면 한층 수익률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주가연계증권(ELS) 중에서 ETN과 구조가 비슷한 장외지수형을 ETN 시장으로 옮겨오면 기존 인기 ELS의 후광 효과도 기대된다.

기업은행 캄보디아 사무소 개소 IBK기업은행은 16일 동남아시아 지역 영업망 확대를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에 사무소를 개설했다.(왼쪽부터) 현권익 기업은행 프놈펜사무소장, 라쓰 소반노락 캄보디아 중앙은행 은행감독국 부이사, 양성모 캄보디아 한인회장, 곽범수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공사 겸 총영사, 권선주 기업은행장, 킴 바다 캄보디아 중앙은행 은행감독국 이사, 강남식 한국경제인협의회장, 펑 큐싸이 카나디아 은행장, 윤준구 기업은행 글로벌 자금시장본부 부행장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기업은행 제공

올 마지막 FOMC회의 금리인상 힌트 줄까?

'상당 기간' 문구 삭제 가능성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6~17일(현지시간)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 금리 인상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통화정책 방향을 내놓는다.

이번 회의의 관건은 통화정책 방향의 '문구 수정' 여부다. 연준은 올해초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을 시작하면서 저금리(0~0.25%) 유지 기간에 대해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의 삭제 여부가 이번 회의의 관심사다.

연준이 그동안 기준금리 최초 인상 시점을 내년 중반으로 제시해왔고 '상당 기간'의 의미가 6개월 안팎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가 이 문구를 없애고, 다른 선제 안내를 제시하기에 적기라고 판단된다"면서 "이 표현이 삭제되면 연준이 내년 여름께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연준 관계자들도 최근 들어 문구 수정 가능성을 꾸준히 시사해왔다.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몇 달 전보다 그것(상당 기간)을 삭제하는 데 가까이 간 것은 더 분명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이 내년 1월 27~28일 회의 때는 없고, 그 다음 3월 17~18일 회의에서나 예정돼 있다. 이 역시 올해 마지막인 이번 회의가 통화 정책을 변경하고, 이를 설명하기에 좋은 기회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이번 회의 결과는 17일 오후 2시(한국시간 18일 오전 4시) 성명 형태로 나오고, 30분 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이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내년 미국 경제성장 전망을 담은 보고서도 별도로 낸다.

/김민지기자 minji@

메리츠화재 'e카드 이벤트'

메리츠화재는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연말연시에 소중한 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걱정인형 e카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걱정인형 홈페이지(www.merrydoll.co.kr)를 방문, 크리스마스 또는 새해인사 2가지 영상 중 한 가지로 메시지를 작성하면 된다. 연말연시 감사의 인사를 담은 e카드는 가족·친구·지인의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 발송되며, 메시지를 받은 지인들도 바로 이벤트 사이트를 통해 답장을 보낼 수 있다.

회사는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행복상(300명)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감사상(1,000명) 편의점 상품권, 우정상(5,000명) 걱정인형 이모티콘 등 경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당첨자는 오는 2월 4일 걱정인형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힘든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힘찬 새해를 맞이하는데 걱정인형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연말연시 걱정인형 e카드로 소중한 지인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농협금융 지주 현장·성과 중심 인사

김관녕 NH농협생명 부사장, 1년 만에 전격 해임

농협금융지주는 16일 상무와 부행장급 경영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일선 현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윤동기 충남영업본부장과 박석모 경남영업본부장, 조재록 경기지역본부장은 농협은행 부행장, 이윤배 강원지역본부장은 농협생명 부사장으로 각각 내정됐다.

반면 NH농협생명의 김관녕 전략총괄 부사장은 1년 만에 전격 해임됐다. 김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16일 부사장에 선임된 지 1년 만에 퇴진하게 됐다.

앞서 윤 부행장과 박 부행장은 일선 영업본부에서 각각 1, 2위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았다.

또 농협금융은 젊은 인재의 발굴과 범농협 시너지 제고 차원에서 오병관 중앙회 기획실장을 농협금융지주 상무대우로 전격 발탁했다.

자산운용부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전 한화생명 투자전략본부장 김희석 전무를 영입했다. 김 CIO는 농협생명 CIO와 농협금융지주 CIO를 겸직하게 된다.

한편 금융지주에서 재무전략과 자산운용 개편을 총괄했던 허식 농협금융지주 상무는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으로 이동하며, 김호민 기획조정부장은 농협은행 부행장으로 승진했다.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출범 4년차를 맞이해 외형에 걸맞는 수익력 제고가 당면과제"라며 "성과주의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무소장과 직원 인사에서도 현장·업적중심의 인사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백아란기자 alive0203@

대신證, IB사업단장에 정태영씨

대신증권은 16일 자사 IB사업단장(부사장)으로 KDB대우증권 투자은행(IB)사업 부문 대표를 지낸 정태영(사진)씨를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 부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와 고려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이후 대우증권 인수공모부를 시작으로 전략기획실, 국제금융부, 파생시장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IB사업부문 대표, 해외사업부문 대표 등을 두루 거치며 금융투자업계에서 30년간 경력을 쌓았다.

정 부사장은 대우증권 IB사업부문 대표를 역임하면서 대우증권을 IB업계 수위에 올려놨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외사업부문 대표를 맡았을 때엔 대우증권의 몽골 현지법인 설립 등 해외시장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쏘나타 1.6 가솔린 터보·디젤 나온다

현대차 내년 중반 국내 출시 밝혀

현대자동차가 16일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공개한 데 이어 내년에는 디젤과 1.6 터보,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2.0 터보를 차례로 추가한다.

현대자동차 김상대 이사는 16일 쏘나타 하이브리드 발표회장에서 기자와 만나 "미국 시판에 들어간 쏘나타 1.6 터보를 내년 중반기 중 한국에서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얼마 전까지 국내 출시 계획이 없다고 밝힌 현대차의 공식 입장과 다른 것이다. 본지는 올해 1월 27일자에서 현대 신형 쏘나타에 1.6 터보 엔진이 얹힌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후 1.6 터보의 한국 출시를 공식 확인한 것은 본지 보도가 역시 처음이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신형 쏘나타는 개발 당시부터 7개 파워트레인으로 개발됐으며, 1.6 터보의 국내 출시도 이미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의 1.6 가솔린 터보 엔진은 최고출력 204마력으로, 현재 벨로스터 터보 모델에 장착되고 있다. 그러나 벨로스터 터보는 자동변속기가 조합된 반면에, 신형 쏘나타는 DCT와 조합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신형 쏘나타의 1.6 터보 엔진은 최대토크 27.0kg·m를 내 쏘나타 2.0 CVVL 모델(172마력, 20.5kg·m)보다 강력한 파워를 낸다.

현대차가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은 파워와 연비를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DCT는 수동변속기 메커니즘 기반에 자동변속기의 편리함을 더한 변속기로, 좋은 연비와 빠른 변속감각이 특징이다. 다만 아직까지 현대차가 DCT를 양산차에 적용한 것은 벨로스터 일반형뿐이고, 벨로스터 터보에는 장착하지 않았다. 이는 터보 엔진의 높은 출력을 DCT가 감당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 현대차는 지속적으로 보완 작업을 거쳐 신형 쏘나타에 적용할 예정이다.

현대차에 적용 중인 DCT는 현대위아가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 생산라인을 대폭 확대해 소형차와 준중형차, 중형차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현대차의 이 같은 선택은 기업평균연비제도(CAFE)를 맞추려는 의도도 있다. 오는 2015년이면 우리나라에서도 기업평균연비 17.0km/ℓ(2011년 15.9km/ℓ)를 달성해야 하고, 이를 맞추지 못할 경우 기업이 부담금을 물게 된다. 미국에서도 2015년에 더욱 강화된 기업평균연비가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1만대 이상 판매하는 업체라면 모두 적용대상이다. 오는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마일당 163g(연비 23.2km/ℓ)으로 맞춰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벌금을 내야한다.

현대차가 신형 쏘나타에 1.6 엔진과 DCT를 장착하면 국내에서 르노삼성 SM5 TCE에 이은 두 번째 다운사이징 중형차가 된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권리금 없는 신규상가 '인기'

저금리영향 수요 급증

저금리 영향으로 상가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권리금 없는 신규 분양상가가 인기다. 직접 영업을 하려는 실수요자는 투자금을 아낄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있다.

16일 상가정보업체 점포라인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서울지역 상가 3.3㎡당 평균 권리금은 333만7508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95만8470원에 비해 12.8% 상승한 금액으로, 33㎡(10평)짜리 점포에 들어가면서 보증금 외 3300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권리금이 상가를 매입하거나 임대차할 때 관행적으로 오가는 돈이라는 데 있다.

법으로 보호되지 않다 보니 권리금을 고스란히 떼이는 임차인이 속출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임차인들 사이에서 오간 권리금을 상가주인이 보호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많다.

이에 권리금과 무관한 신규 분양상가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도 늘고 있다. 최근 들어 낙찰가가 내정가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형성되는가 하면, 일부 지역 상가의 경우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기도 한다.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7블록에 공급 중인 'H스트리트 파크' 분양 관계자는 "하루 70통 정도였던 전화문의가 지난 금요일 계약을 시작하자마자 200통 이상 늘었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되는 '송도 캠퍼스타운 애비뉴' 상가 역시 지난 10월부터 분양에 들어가 현재 80%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다. 송도 주요 상가의 권리금이 1억원을 상회하는 데다, 역세권에 대학교를 끼고 있는 입지가 투자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상권 검증 안 돼, '묻지마' 투자 지양해야

다만 권리금이 없는 만큼, 분양가가 비쌀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위례·광교·강남 등 소위 '핫 플레이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상가 공급가격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또 건설사가 제시한 내정가는 낮아도 입찰 과정에서 낙찰가가 오르기도 한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일부 지역의 경우 대규모 개발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가 공급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상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상가 매매가나 임대료가 오르기보다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장경철 부동산센터 이사 역시 "기존상가는 어느 정도 검증된 상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률은 낮아도 위험 부담은 크지 않다"며 "신규상가는 상권이 활성화되기까지 리스크가 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실 우려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삼성전자 S'골드러시 이사 마일리지 삼성전자 모델들이 16일 운니동 삼성 래미안갤러리에서 이사를 앞둔 고객에게 삼성전자 S'골드러시 이사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S'골드러시 이사 마일리지는 이사할 때 가전제품 교체수요와 이사비용으로 인한 카드 사용 비중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이사를 돕고자 기획됐다. /삼성전자 제공

법적 검토 없이 시정조치 남발?

대기업 상대 승소율 26%…법정공방 갈수록 늘어

issue&view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박성훈기자 zen@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기업들로부터 징수하는 과징금이 4473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34% 증가한 수준이다.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은 2010년 5074억원, 2011년 3473억원, 2012년 9115억원, 지난해 3329억원이다.

공정위가 최근 5년간 부과한 과징금을 보면 2011·2013년이 3000억원대였고 나머지 해는 많게는 이보다 3배 수준이다. 내년 과징금 예상액도 올해보다 2000억원이 늘어나는 규모다.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이에 맞서 기업들은 소송을 택하고 있다. 공정위가 기업과 벌이는 법정공방이 늘고 있는 이유다.

시정조치건수별 소 제기 비율은 2006년 4.1%에서 2009년 8.4%, 2010년 12.6%, 2012년 13.4%로 증가 추세다.

문제는 공정위가 과징금 규모가 큰 소송에서는 번번히 패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이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0년 이후 3년간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소송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에 제기된 총 150건의 소송 중 공정위가 패소하거나 일부 승소해 감경된 과징금 규모는 1000억원대에 달했다. 특히 과징금 규모가 작은 소송에서는 대부분 승리했지만 규모가 큰 소송에서는 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

1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 규모의 소송은 총 90건 중 39건에서 이겨 승소율이 43%에 머물렀고 100억원을 초과하는 규모의 소송 27건 가운데 이긴 경우는 7건으로 승소율은 26%였다.

즉 대기업을 상대로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시정조치를 남발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규정을 놓고 네이버와 공정위가 6년 간 벌인 소송에서 지난달 네이버가 최종 승소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앞서 네이버는 2006년 4월~2007년 3월 판도라TV 등 동영상 업체와 계약하며 네이버 검색에서 찾을 수 있는 동영상에 사전 협의하지 않은 '상영 전 광고'를 넣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당시 네이버가 상영 전 광고를 금지한 것은 동영상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제한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고유 권한이라 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가 능사는 아니다.

UHD 방송 "내년엔 날개 펴겠다"

셋톱박스 보급 본격화… 콘텐츠 수급에도 주력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업계가 올해 본격 상용화에 나선 '초고화질(UHD) 방송'이 최근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유료방송업계는 내년 초 본격적인 UHD 셋톱박스 보급, 다양한 콘텐츠 확보 등을 통해 UHD 방송의 도약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16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지난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UHD 방송 서비스의 보급속도가 빠르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블업계는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UHD 방송 상용화에 나섰다. 케이블업계는 UHD 방송 전문채널인 '유맥스(UMAX)'를 개국하고,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016년까지 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 UHD 콘텐츠 확보가 곧 UHD 방송 활성화의 지름길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방송업계는 자칫 UHD 방송 활성화가 3D 방송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내에선 한 때 3D 방송에 대한 붐이 일면서 정부도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등 지원에 나섰지만 결국 관련 콘텐츠 수급 부족으로 인해 실패했다. 3D 방송 콘텐츠의 경우 제작비가 많이 들고 제작기간이 길어 흥행에 실패할 경우 그만큼 부담도 커 콘텐츠 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UHD 방송은 다르다는 지적이다. 우선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도 나서 UHD 방송 콘텐츠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 IPTV도 케이블TV에 이어 UHD 방송 상용화에 나섰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는 최근 UHD 셋톱박스를 출시하며 가입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도 지난 6월 '스카이UHD' 채널을 상용화하며 본격적인 UHD 콘텐츠 경쟁 시대를 열었다. 당시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2015년까지 총 102억원을 투자해 UHD 스튜디오, 편집시설, 제작전문인력 육성까지 '논스톱 UHD 제작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내년까지 스카이UHD 총 3개 채널을 론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유료방송업계는 최근 풀HD 영상을 UHD 영상으로 전환시켜주는 업스케일링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영화, 드라마 등 UHD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 UHD 방송 상용화 초기 다큐멘터리 중심으로 방송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스포츠, 영화, 드라마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자체 생산 콘텐츠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양휘부 케이블협회장은 "유맥스를 통해 CJ E&M이 제작한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를 국내 드라마 중 처음으로 UHD로 방영하는 등 자체 생산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도 업계가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최근 유료방송업계가 하드웨어 방식의 UHD 셋톱박스로 전환하면서 내년부터 UHD 방송의 새로운 전기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무선 외장하드 마이 패스포트 와이어리스 16일 서울 한남동 애드립에서 모델들이 웨스턴디지털(WD) 무선 외장하드인 '마이 패스포트 와이어리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SD 카드 슬롯과 자체 와이파이 기능을 탑재해 카메라와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무선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차세대 디스플레이 '퀀텀닷' 불꽃 경쟁

色 재현율 높고 저렴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퀀텀닷(양자점)'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다.

퀀텀닷이란 스스로 빛을 내는 나노미터(nm) 크기의 반도체 결정으로 전압이나 빛을 가하면 크기에 따라 각각 다른 색을 낸다. 무기물이기 때문에 유기물을 기반으로 하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보다 상대적으로 수명이 길며 양산이 쉽고 가격이 저렴하다. LCD의 색재현율은 OLED의 70~80% 수준이지만 퀀텀닷 소재를 입힌 필름을 덧붙이면 OLED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 때문에 LCD TV 패널에 퀀텀닷 필름을 덧댄 퀀텀닷 TV가 LCD TV 와 OLED TV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독성 물질인 중금속 카드뮴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최근 비(非)카드뮴계 퀀텀닷 소재 기술이 확보되면서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지난 3분기 실적발표회에서 퀀텀닷 TV에 대해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커브드·UHD·벤더블 등 이미 확보한 LCD 기술력을 더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지만 퀀텀닷 TV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OLED 대중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LG전자는 퀀텀닷 TV와의 투트랙 전략을 취하기로 하고 다음달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5'에서 퀀텀닷 UHD TV를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는 삼성전자 역시 CES를 기점으로 관련 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에서도 이런 행보가 지속되고 있다. 소니는 지난해 UHD TV와 스마트폰 엑스페리아 Z1에 퀀텀닷 기술을 적용했으며 중국의 TCL, 하이센스 등도 지난 9월 유럽 가전박람회 'IFA 2014'에서 퀀텀닷 TV를 선보였다. 아마존도 올해 초 출시한 킨들파이어에 퀀텀닷을 적용했고 애플 역시 레티나 디스플레이의 화질과 색 정확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퀀텀닷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이처럼 퀀텀닷이 LCD와 OLED와 비교했을 때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다수의 업체들이 퀀텀닷 LCD TV를 선보이고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퀀텀닷을 LCD와 OLED의 과도기적 제품으로 보고 있다. 퀀텀닷 LCD 디스플레이는 LCD에 필름만 덧붙이면 되기 때문에 모든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양산할 수 있어 서로 차별화하기 어렵다. 또 퀀텀닷보다 색재현율이 높은 OLED 패널 수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OLED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아이패드에어2 써보니

칼날 두께 성능 빵빵… 노트북 필요없네~

스마트폰보다 얇은 슬림 디자인
손가락 터치로 필기·그림도 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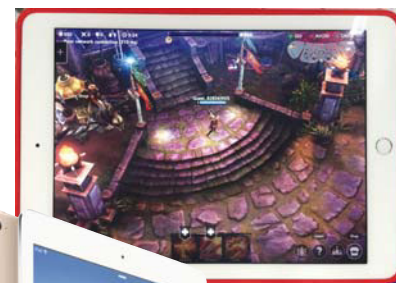
애플의 최신 태블릿 '아이패드에어2'를 일주일간 써본 느낌이다. 기존부터 뛰어났던 디자인과 성능은 물론 사용편의성에서도 노트북을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아이패드에어2를 처음 접했을 때 '혹시 세게 잡으면 부러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얇은 두께에 눈길을 빼앗겼다. 삼성의 '갤럭시 알파'(6.7㎜), 애플의 아이폰6(6.9㎜) 등 스마트폰보다도 얇은 6.1mm이기 때문이다. 무게도 웬만한 노트북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가볍다. 437g으로 책 한권 무게에 불과하다.

더욱 슬림해진 디자인 덕분에 눈은 물론 손과 어깨도 즐거워졌다. 지하철에서 한손으로 들고 10분 이상 보기 힘들었던 전작들과는 달리 30분 이상 사용해도 팔 저림이 거의 없었다.

얇고 가벼워졌지만 성능은 웬만한 노트북 못지않을 만큼 향상된 느낌이다. 64비트 A8X 프로세스, M8 모션 보조 프로세서, 2GB 시스템 메모리를 탑재해 고사양 프로그램도 무리없이 돌아간다. 실제로 초당 60프레임을 처리해야 하는 비디오 게임 급 롤플레잉 게임인 '베인글로리(Vainglory)'는 웬만한 노트북에서는 맛보기 힘든 화려한 그래픽을 선사한다.

터치 반응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커버글래스, 디스플레이, 터치패널 등을 하나로 합쳐 손끝과 픽셀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전용펜 없이 손가락 터치로 강의 내용을 필기하거나 주변풍경을 스케치할 때 마치 종이 위에 직접 쓰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56%나 줄어든 디스플레이 반사도 아이패드에어2의 사용 즐거움을 향상시켰다. 햇빛이 강한 야외에서도 색이 더 정확하고 또렷하게 보여 동영상이나 e북을 편안히 감상할 수 있다.

◆테더링 자유자재…와이파이버전 충분

무엇보다 한층 편해진 업무 활용성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캘린더, 연락처, 사진은 물론 작업 중인 문서도 실시간 공유된다. 예를 들어 집에서 아이폰으로 쓰던 e메일을 지하철에서 아이패드에어2로 열어 수정해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또 아이폰으로 걸려온 전화나 문자도 아이패드에어2로 받을 수 있다.

테더링(무선 데이터 공유) 이용도 편해졌다. 와이파이처럼 한번만 등록해 놓으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LTE버전이 아닌 와이파이버전을 구입해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터치 ID 지문 인식센서, 타임랩스·연사모드·슬로모션까지 지원하는 카메라 성능도 웬만한 노트북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편리하다.

기대에 못 미치는 점도 물론 있다. 최대 10시간이라는 애플 측의 설명보다는 배터리 사용시간이 다소 짧았다. 소리를 키우면 화면까지 떨리는 울림 현상도 다소 불편했다. 하지만 아이패드에어2를 사용할수록 노트북과의 완전 결별이 눈앞에 다가오는 느낌이다.

/이국명기자 kmlee@

제트팩 매고 날아서 회사 출퇴근?

미래 이동 수단 성큼…비용·안전 문제로 실현은 미지수

글로벌 이코노미

/조선미기자 seonmi@

'제트팩'(1인용 비행 물체)을 매고 상공을 날아 출근하는 날이 올까.

최근 미국 경제매체 CNN머니는 우주선과 제트팩 등 미래 이동 수단을 소개하며 꿈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짚었다.

◆ 우주선 타고 화성 여행

상업용 우주선이 등장한 뒤로 우주 여행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영국 상업 우주여행사 버진 갤럭틱의 '스페이스십'이 대표적이다. 다만 여행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버진 갤럭틱의 우주 상품은 20만 달러(약 2억1000만원)다. 우주선을 타고 2시간 정도 지구 상공 100㎞ 궤도를 비행하는 것이다.

세계 최고 갑부들은 우주 여행 티켓을 사겠다고 난리다. 하지만 중산층 가정에서 우주 여행은 언감생심 그림의 떡이다. 미래학자들은 "우주선을 타고 여름에 화성으로 휴가를 떠나는 일은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일이 아니다. 비싼 우주선 탑승 티켓을 끊기가 어려울 뿐"이라고 말했다.

◆ 제트팩 매고 훨훨 '인간새'

미래에는 제트팩을 매고 하늘을 날아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을까. 뉴질랜드 업체 마틴 에어크래프트는 제트팩을 개발, 시험 비행에서 1.5km 상공까지 치솟는 데 성공했다. 이같은 사실은 인간새의 비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지만 현실에서 제트팩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먼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안전 문제다. 제트팩 파일럿 닉 매컴버는 "제트팩을 매고 상공을 누비다 충돌할 경우 강력한 충격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료도 문제다. 매컴버는 제트팩으로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연료를 많이 넣을 경우 무게 때문에 비행 자체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축구 경기의 하프타임 공연 등 짧은 이벤트에서 제트팩 비행을 선보이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 무인 자동차 씽씽

무인 자동차는 미국 내 주요 도로를 달리며 세계인의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세계 최대 검색 업체 구글이 2009년 무인차 프로젝트를 시작해 질주한 덕분이다. 하지만 시험 주행과 달리 일반 도로에서 무인 자동차를 보려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 도로 신호와 교통 규칙 등을 변경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인 자동차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운전자도 적지 않다. 자동 주차,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며 속도를 지켜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부분 자동화 시스템은 이미 현실화됐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이 무인 자동차에 전적으로 몸을 맡기는 것은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미 고교생 주식천재 화제

9살부터 투자해 천만장자

미국 뉴욕의 명문 특목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 주식투자로 수백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이 학생은 점심 등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뉴욕포스트·CNBC 등은 스타이브센트 고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모하메드 이슬람(Mohammed Islam·17·**사진**)이 주식투자를 통해 수천만 달러의 재산을 모았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슬람이 그동안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돈은 7200만 달러(약 791억)에 달한다. 그는 최근 뉴욕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재산 규모에 대해 "여덟 자리 수에서는 좀 많은 편"이라고만 밝힌 바 있다.

인도 벵골 출신 이주민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이슬람은 9살 때부터 돈을 조금씩 모아 주식투자에 손을 댔다. 얼마 후 돈을 잃게 되자 헤지펀드, 자산운용가들의 성공담을 공부하며 이론적 기초를 다졌다.

이후 금, 원유 등 상품 거래로 들어섰고 오래 지나지 않아 큰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에서 '투자클럽'을 이끄는 이슬람은 내년 대학에 진학한 후 중개인 자격증을 따서 친구 2명과 함께 헤지펀드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국명기자

신흥국 금융시장 위기감…러시아 루블화가치 폭락

1998년 외환위기로 회귀 우려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신흥국의 금융시장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가 나오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신흥국의 외환위기가 불거진 1998년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10.5%에서 17.0%로 6.5%포인트 올려 1998년 이후 최대 금리 인상폭을 기록했다.

러시아가 이례적으로 금리를 대폭 올린 것은 환율 방어에 나서기 위해서다.

루블화 환율은 전날 달러 대비 64.45 루블로 9.7% 하락했다. 올해 1월 이후 루블화 가치는 50% 넘게 폭락했다.

러시아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나빠졌고 외환보유액(4162억 달러)도 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서방과의 제재공방으로 경제에 악영향이 예견된 상황에서 최근 국제유가 급락으로 경상수지 악화 등 거시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든 영향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도 전날 달러당 1만2689 루피아까지 떨어져 지난 1998년 8월 이후 최저를 보였다.

16일 러시아 모스크바 시민이 환율이 표시된 전광판 밑을 걸어가고 있다. /AP 연합뉴스

경상수지 적자가 3년째 이어진데다가 미국 금리가 오를 조짐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한편 리라화는 전날 1.4% 떨어진 달러당 2.33 리라에 거래돼 지난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이슬람 사상가 페툴라 귤렌 간 충돌이 격화하면서 정정 불안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들었다.

베네수엘라는 디폴트 우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전문 분석 기관 CMA의 전망을 인용해 베네수엘라가 12개월 내에 채무 불이행에 직면할 가능성이 97%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최근 태국의 주식시장도 침체에 빠졌고 브라질 국채시장도 휘청거리고 있다. 블룸버그는 신흥국의 주식, 채권, 환율 시장이 거꾸러지는 상황이 1998년 외환위기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고 설명했다.

신흥국에서의 대규모 자금 이탈 조짐도 보인다. 신흥국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에서 지난주 25억 달러 이상이 빠져나갔다. 이탈 규모는 올해 1월 이후 최대다. /김수정기자 ksj0215@

동성제약
www.dongsung-pharm.co.kr
냄새없는 무향의 부드럽고 자연스런 염색
세븐에이트
무향료
칼라크림
특허
6
자연스런 갈색
빠른염모
무향료
광택
자외선 차단제 함유
60g 대용량
듀엣 T&C 염색모발 전용샴푸
자연스런 백발염색

새로 나온 책

파워 스윙스/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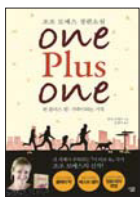
2013년 '쇼미더머니2'의 지원자로 등장해 '괴물 래퍼'라는 수식을 얻은 래퍼 스윙스가 여러 활동을 잠시 마무리하는 의미로 틈틈이 써온 글들을 엮었다. 방황했던 어린 시절, 나이 든 부모님과의 에피소드 등 개인적인 이야기에서부터 독립을 시작하고부터 겪은 우여곡절과 남과 여, 선과 악 등 대비되는 관념을 바라보는 시선, 사회전반을 바라보는 비판 섞인 시선도 보여준다.

발칙한 꿈해몽 조선우/책읽는 귀족

책은 우리가 매일 꾸는 꿈을 단순히 '개꿈'이라고 치부해버리기엔 많은 의미를 품고 있다고 전한다. 손쉽게 길몽과 흉몽을 가릴 수 있는 다섯 가지 기본 법칙은 물론 예지몽에 대한 생생한 사례를 들어 꿈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 준다. 저자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꾸는 꿈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의미와 해석을 알려준다.

친환경 아줌마 꼬물댁의 후다닥 한 그릇 밥상 임미현/인사이트 북스

성장기 청소년을 위한 따뜻한 밥상과 간식 레시피 80가지를 소개했다. 저자는 고기·해물·채소 등 마트에서 언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된장·고추장·간장·소금처럼 집에 항상 있는 양념으로만 요리했다. 인스턴트소스나 화학첨가물이 들어 있는 가공 식품도 사용하지 않았다.

원 플러스 원 조조 모예스/살림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우리 시대의 가족,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조금은 제멋대로인, 하지만 어떤 삶이든 따뜻하게 사랑할 줄 아는 여자 제스와 무엇이든 계획대로 하며, 자신 이외의 것 들을 아직 사랑해본 적 없는 남자 에드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크라임 이펙트 이창무/위즈덤 하우스

역사와 인류 문명의 변화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16가지의 범죄사건을 재조명했다. 신화의 시대부터 시작해 고대·중세·근대로 문명이 발전해 오며 인류에게 들이닥친 불행의 원인을 '범죄'라는 잣대를 통해 찾아본다. 또 범죄가 문명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불러왔는지 살피며 범죄가 세계사의 주요 전환점으로 작용했음을 주목한다.

/박지원기자 pjw@

상상력의 한계를 넘는 SF 이야기

할리우드 최고 시나리오 작가의 첫 장편소설

▲배트맨 비긴즈 ▲다크 나이트 ▲블레이드 ▲슈퍼맨: 맨 오브 스틸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세계적인 명작의 제작과 기획, 그리고 시나리오를 책임졌던 데이비드 S. 고이어가 TV 시리즈로 SF를 풀어내는 마이클 캐싯과 함께 첫 장편소설을 내놨다.

가까운 미래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강렬하고 커다란 이야기는 저자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과 같이 철저하게 구상되고 완벽하게 연구된 SF의 세계를 보여준다.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으며 대중들의 호평을 받은 그의 작품들의 계보를 잇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이다.

해븐스 섀도우
데이비드 S.고이어·마이클 캐섯/청조사

또 할리우드 최고의 시나리오 작가라는 명성답게 저자 특유의 상상력과 유머가 녹아있는 스토리는 한 편의 영화와 가깝다.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전개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그동안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오고 고군분투하는 인간적인 모습의 영웅은 영화 속 주인공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거대하지만 심도 있는 이야기 속의 상상력을 넘는 놀라운 이야기. 이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흥미롭고 스릴 넘치는 우주여행이 시작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 희망과 용기의 '생명의 다리'

2011년까지 한강 다리 투신자 수 1위를 기록하며 '죽음의 다리'로 불리던 마포대교. 하지만 마포대교가 세상에 첫 모습을 보인 1970년 이 다리는 서울의 변방이던 여의도에 생명을 불어넣은 '생명의 다리'였다. 그리고 이제 마포대교의 작기만 했던 불빛들은 생명의 온기를 품고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과 용기를 주기 시작했다. -'서울 건축 만담'(차현호·최준석/아트북스) 중- /황재용기자

베스트셀러, 전자책 독자 늘었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상위권 기록

인터넷 서점이 올해 전자책 도서 판매 동향을 발표했다.

모바일 이용자가 늘면서 올해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베스트셀러 트렌드가 종이책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교보문고에서 ebook 매출은 지난해 보다 6.1% 증가했다. 장르소설 분야가 45.5%로 가장 높은 판매 점유율을 보였으며 장르소설에 소설 분야를 합한 문학 부분이 절반 이상(59.7%)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고전 인문서 콘텐츠가 늘어나고 종이책 베스트셀러가 ebook으로 출간되면서 인문과 경제경영 분야의 판매권 수 점유율도 증가 추세다.

세트 콘텐츠도 인기를 끌었다. 소장 가치가 높은 콘텐츠를 ebook으로 기획 출시하면서 종이책 대비 저렴한 가격과 휴대 편리성 등을 장점으로 내세워 독자를 끌어 당긴 것으로 보인다.

예스24에서는 만화 분야 점유율이 4.8%로 지난해 보다 2.1%p 상승했다. 이어 국어와 외국어 분야가 2.0%p 증가하며 두 번째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장르문학은 점유율이 48.2% 가장 높았으나 지난해 보다 소폭 감소했다.

한편 종이책에서 베스트셀러였던 도서가 전자책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는 종이책과 전자책을 동시에 출간하는 출판사가 증가했으며 종이책 베스트셀러를 전자책으로 읽는 독자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요나스 요나손의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은 교보문고와 예스24의 ebook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각각 1위, 2위를 기록했다. 이 책은 두 인터넷 서점의 종이책 베스트셀러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김수정기자

"오늘날의 미생에게 전하는 힐링 메시지"

화제의 책

30년 직장생활 경험자 눈으로 바라본 세상

30센티 마음여행
최필규/프리이코노미라이프

요즘 드라마 '미생'을 모르면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 프로기사만을 목표로 살다가 입단에 실패한 뒤 종합상사 인턴으로 입사한 장그래가 직장에서 상처받고 때로는 위로받으며 성장하는 이야기가 우리 직장인의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에 공감을 얻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미생이 사회 초년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30센티 마음여행'은 3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한 경험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완생(完生)의 길을 찾아보자고 권유한다.

저자는 경제전문 기자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현대그룹 홍보실장을 거쳐 그룹전략기획본부 상임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소통하는 삶' '겸손한 삶' '목표가 있는 삶' '실천하는 삶' '인내하는 삶' 등 5개의 목차에 직장인으로서의 애환,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응원과 힐링의 메시지를 이 책에 담았다.

누구에게나 녹록지 않은 것이 직장생활이다. 상사의 한마디가 가슴을 찌르기도 하고 내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는 동료가 야속할 때도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지만 바로 그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아 갑갑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인생사다.

이 책은 저자가 그런 순간들을 성찰하며 쓴 글 모음집이다. 작은 관점의 변화로 행복의 실마리를 찾아주는 소소한 이야기가 몸과 마음으로 에너지를 소진해버린 오늘날의 미생들에게 비타민처럼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

냉동·건조 과일제품 인기

보관 간편, 활용도 높아…영양소 생과일보다 높기도

겨울철이 되면 과일 가격이 크게 오른다. 게다가 외국 현지 기상 상황 등이 반영돼 현지 가격이 상승하면 겨울철 국내 과일 유통 시장엔 비상이 걸린다.

이 때문에 최근 가격이나 맛의 변화가 적고 보관이나 활용도가 높은 냉동·건조 과일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냉동 과일'이나 '건조 과일'은 영양 손실이 적고, 농축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냉동 과일은 편리성과 활용 측면에서는 유용하다는 점은 인정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 미국 사우스다코타주립대학교 식품학과 연구진은 블루베리를 얼릴 경우, 함유된 항산화물질 농도가 더욱 증가된다고 밝혔다. 또 미국 조지아대학교 연구진의 조사에서는 냉동제품의 비타민 C 함량이 냉장제품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게 나타나 영양성분 손실에 대해 우려를 줄였다.

자연원이 출시한 '두 번 엄선한 냉동 과일' 시리즈 2종은 첨가물 없이 자연 그대로의 과일을 냉동시킨 제품이다. 낮은 칼로리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여성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준다. 오렌지의 경우 마멀레이드나 쿠키 타르트 등의 재료로 쓸 수 있으며,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아 착즙 주스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또 자몽은 자몽청을 만들어 자몽에이드로 활용하거나 샐러드에 곁들여 먹을 수 있다.

코스트코의 '선라이즈 그로워 믹스 프룻'은 복숭아·파인애플·딸기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으로 다양한 과일에 요거트를 이용해 수제 요거트나 쉐이크로 활용할 수 있다.

홈플러스에서 직접 수입한 'TESCO 냉동 블루베리'는 생과일 보다 저렴한데다가 보관이 편리하고 우유나 요구르트 등과 함께 갈아서 마시는 형태로 섭취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특히 블루베리는 슈퍼푸드 중 하나로 손꼽히며 안토시아닌 색소와 비타민·무기질로 인해 시력회복과 노화방지에 도움이 된다.

건조과일은 겨울철 가장 인기가 높다. 특히 건조한 날씨에 비타민과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는 건조 과일은 많은 여성들의 핫한 간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소셜커머스 쿠팡의 자료에 의하면 고구마 말랭이는 지난달 판매량이 전월보다 약 200% 상승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식품건조기 시장이 500억원 대에 이르는 등 건조 과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돌(Dole)코리아의 '바나나 칩'과 '건망고'는 먹기 좋은 크기로 슬라이스해 건조한 제품이다. '바나나 칩'은 영양가가 높고 당뇨에 방에도 좋은 코코넛 오일에 바나나를 더해 바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위생 공정을 통해 생산된 건망고가 지퍼팩 패키지에 담겨 있어 보관이 편리하며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

신선한 고구마를 쪄서 첨가물 없이 그대로 말린 대상 청정원의 '고구마츄'는 식이 섬유가 풍부하고 단 한 팩으로 포만감까지 느낄 수 있어 여성들의 건강 간식으로 제격이다.

복음자리의 '자연에서 온 과일칩'은 국내산 100% 순수 과일을 저온열풍건조 방식으로 만들어 과일 본연의 맛과 향·영양소까지 그대로 담았다. 미니 사이즈로 포장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영양 간식을 즐길 수 있다.

보령메디앙스의 베이비푸드 브랜드 'OnO2 베이비오'에서 출시한 '바삭아삭한 과일칩'은 식품 첨가물과 감미료 등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100% 과일 그대로를 동결 건조해 영양손실을 최소화하고 한 영양 간식이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해피타임엔 한우·양념갈비가 2+1

강강술래, 연말 알뜰외식 이벤트 행사
단체예약 시 한우육회·현수막 서비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연말을 맞아 알뜰하게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진행중인 '해피아워 이벤트'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불황 여파로 한우나 양념갈비를 2인분 가격에 3인분을 즐길 수 있어 이벤트 시간에 맞춰 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강강술래의 늘봄농원점은 강강·술래·왕양념갈비와 한돈·돼지양념구이를, 홍대점은 한돈·돼지·술래양념구이와 생고기한판 메뉴를 오후 8시30분 이후에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 증정한다.

상계점은 강강·술래·왕양념갈비와 한돈양념구이를, 신림점은 술래양념구이, 역삼점은 왕양념갈비 2+1 행사를 오후 9시 이후 고객을 대상으로 벌인다. 서초점도 주말에 한우 모둠구이·광양불고기와 왕양념갈비 2+1 행사를 하루 종일 진행한다.

여의도점은 주중(월~금)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술래정식을 2인분 시키면 술래양념구이 3대를, 광양불고기 2인분 시키면 한우불고기 150g을 추가 증정한다. 또 주말엔 한우 모둠구이·광양불고기와 왕양념갈비 2+1 행사를 하루 종일 벌여 인기를 끌고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12월 말까지 전 매장에서는 8인 이상 사전예약 시 한우육회를 테이블 당 하나씩 서비스로 제공한다. 20인 이상 예약할 경우

육회와 함께 현수막을 제작 지원한다. 단, 구이메뉴(정식류·해피아워 제외) 주문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주일 전까지 예약해야 한다.

이달 21일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술래양념(8대)과 한우불고기(500g)·한돈양념구이(500g)·돼지양념구이(500g)으로 구성된 송년세트를 40% 할인된 6만원에 판매한다.

/정영일기자

뉴스&뉴스

이디야커피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

●이디야커피는 16일 동대문구청 앞마당에서 문창기 회장을 비롯해 10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3000㎏의 김장 김치를 직접 담궈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벌였다.

회사 측은 '이디야 메이트 희망기금 사업' '장애인의 날 캠페인' '아프리카 우물개발지원사업 B' WATER 캠페인' '중국 소주 한국학교 건립기금 기부'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숙취해소 도움 칵테일베이스 '홍기사'

●대상 청정원이 연말을 맞아 술을 한층 맛있게 마실 수 있으면서 숙취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신개념 칵테일베이스 '홍기사(Red Knights)'를 출시한다.

기존 인기제품 '홍초'에 숙취해소 성분 '헛개'와 '아스파라긴산'을 첨가한 칵테일믹스 전용 미니병 제품이다. 오렌지 계열의 '시트러스' '애플' 2종류 맛으로 선보인다.

소주 기준으로 1병(360㎖)에서 한 잔(50㎖)을 따라내고, 홍기사 1병(50㎖)을 섞으면 된다. 가격은 1병 1500원.

담배·숙취해소 음료 찾는 여성↑

사회진출 늘어나자 구매 비중 늘어

주로 남성들이 찾던 주류·숙취해소 음료·담배를 구매하는 여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12월 들어 주류·숙취해소 음료·담배 등 상품의 여성 구매력이 급증했다.

담배의 경우 30%가량 매출이 늘어난 가운데 여성 구매 비중이 0.3% 소폭 상승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 구매가 75.6%나 급증하며 전체 여성 구매 비중 증가를 견인했다.

성별 구분 없이 연령대로 분석했을 때는 50세 이상 중년층의 구매 구성비만 지난해 보다 3.5% 증가한 반면 30~40대와 20대 비중은 2.7%, 0.8% 각각 하락했다.

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사회적 지위도 향상되면서 흡연율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류의 경우 주종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알코올 도수가 비교적 낮은 맥주와 와인의 경우 여성 구매 비중이 지난해 보다 각각 0.4%, 1.8% 증가한 반면 소주는 0.8% 하락했다.

한편 숙취해소 음료의 여성 구매 비중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0.9% 늘어났다.

지난해 상큼한 맛과 피부 보습 기능까지 들어간 여성 전용 숙취해소 음료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매출 증가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특히 숙취해소 음료 상품별 판매 순위에 여성 전용 상품 2종이 5위권 안에 진입하기도 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담배·주류·숙취해소 음료 등의 여성 구매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한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아동 완구 '큰손'은 50~60대

'황혼육아' 트렌드에 PC·모바일 사용 가능 영향

50~60대 시니어층이 유·아동 완구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최근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황혼 육아'가 늘어난 데다 온라인·모바일 사용이 능숙한 장년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16일 롯데닷컴에 따르면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어린이 완구의 연령별 매출을 조사한 결과, 50~60대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약 35%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55~59세의 매출은 39%, 65~69세 매출은 43%나 상승했다.

◆크리스마스 시즌 맞물려 완구 매출 급증

이와 함께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손주 선물을 구입하려는 50대 이상 시니어들이 늘어나면서 유아동 완구 매출은 급증하고 있다.

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에서는 1일부터 15일까지 50대 이상 장년층 고객의 매출이 전월 동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모바일을 통한 50대 이상 고객의 매출 역시 전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 25% 늘었다.

12월 들어 50대 이상 시니어 고객층이 구매한 품목으로는 유아동 완구·교구가 55%로, 전체 상품 가운데 절반이 넘는 높은 구매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유아동 상품 중 겨울왕국 엘사·또봇·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뽀로로 등 인기 캐릭터 상품이 판매순위 상위에 대거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PC와 모바일 앱으로 유아동 완구를 구입하는 시니어층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유아동 카테고리의 신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정기자

잦은 술자리…피부 돌보자

피곤에 지친 흔적 지우기…'연말 뷰티 퀸' 노하우

크리스마스 파티·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이어지는 12월. 계속되는 술자리에 피부는 물론 머리까지 푸석푸석해지기 십상이다. 피곤에 지친 흔적을 없애고 생기 있는 모습을 되돌려주는 뷰티 아이템이 필요한 때다.

공들여 헤어 스타일링을 하다 보면 머릿결이 상할 수 있다. 이 땐 트리트먼트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모발을 코팅해주면 단 번에 윤기나는 모발을 만들 수 있다.

터치 꾸띄르 '더블 딥케어 트리트먼트'는 단백질로 모발을 채워주고 수분으로 코팅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제품 뒷면의 터치 포인트를 누르면 흰색과 주황색의 두 가지 제형이 나와 손바닥에서 가볍게 섞어준 후에 사용하면 된다.

술은 피부 속 수분을 앗아가 거칠고 늘어지는 피부를 만드는 원인 중 하나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물을 많이 섭취하면 좋겠지만, 계속되는 술자리로 이미 망가진 피부에는 진정 기능이 뛰어난 기능성 제품으로 집중 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기초 스킨케어 단계조차 귀찮을 정도로 피곤한 밤에는 수면팩을 활용하면 좋다. 아벤느 '마스크 아빠장 이드라땅'은 수분 진정 마스크 팩으로 스트레스·과로 등으로 지친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해준다.

생기 있는 피부 연출을 위해서는 베이스 메이크업도 꼼꼼하게 해야 한다. 화장할 때 피부를 화사하게 만들어 주는 제품이나 메이크업만으로도 수분과 영양을 피부에 전해주는 아이템을 선택한다.

칙칙한 피부 톤을 핑크빛으로 보정하는 '비디비치 스킨 일루미네이션 SPF30 PA++'은 투명 톤업 파우더가 피부 속 광채를 살려 피부 밑에 조명이 켜진 듯한 효과를 부여한다. 또 피부 결을 매끄럽게 가꿔 주는 프라이머·T존·C존을 환하게 밝혀주는 하이라이터 역할까지 해준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유통업계 '마지막 할인 전쟁' 뜨겁다

온라인 유통 인하 경쟁…홈쇼핑 5천만원 상당 경품도

유통 업계가 올해 마지막 할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선물 수요가 많은데다, 연말 소비가 내년 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연말이 업계에서는 최대 대목이다. 이에 업계는 혜택을 강화하거나 시즌 상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소셜커머스 티몬은 16일부터 '몬스터 세일'의 혜택을 강화했다. 기존 20만원이었던 할인 적용 제한 금액을 15만원으로 내리는 대신 카드사와 상관없이 할인 비율을 20%로 확대해 15만원이 넘을 경우 3만원, 5만원 이상이면 1만원, 3만원 이상이면 6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메프는 17일까지 '뷰티페어'를 열고 인기 화장품을 할인가에 내놓는다. 특히 타임 세일에서는 오전 11시, 오후 1시·5시 총 3번에 걸쳐 화장품을 최대 95% 할인 판매한다.

11번가는 각국을 대표하는 인기 간식을 한데 모은 'Must Eat Item' 기획전을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

GS샵의 인터넷 쇼핑몰과 모바일에서는 19일까지 '땡스 딜' 특집을 실시한다.

친구·연인·자녀 등 매일 새로운 테마를 선정해 이에 맞춰 패딩·명품핸드백·목걸이·완구·화장품 등을 모아 특가에 판매한다.

CJ오쇼핑은 21일까지 '12월&선물' 이벤트를 열고 TV 상품 구매 고객 중 40명을 추첨해 '펜디 바게트백' '미우미우 토트겸 숄더백' '페라가모 바이스 토트백' 등 총 5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증정한다. 이와 함께 연말 관련 상품 방송을 집중 편성했다. 수요일 오전 8시15분에는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을 맞아 '피오루치 천연양털 소가죽 부츠' 등 패션잡화 방송을 실시하고 이 외에 이번 주 '퍼스트룩 아웃도어 브리티쉬 구스다운' '폴메이저 테일러드 핏 코트세트' '버팔로 대장 다운' 등 겨울 패션 상품들도 집중적으로 방송할 계획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

뉴스&뉴스

쿠론·커스텀멜로우 협업 컬렉션 선보여

●디자이너 잡화 브랜드 '쿠론'는 패션 브랜드 '커스텀멜로우'가 협업 제품을 선보였다고 16일 밝혔다.

컬렉션은 네이튼 토트백·유진 클러치 등 쿠론의 시그니처 아이템에 커스텀멜로우의 2015 봄·여름 테마인 '화이트·블루·네이비'의 마린감성을 담았다. 토트백 2종·클러치 2종·백팩 3종·목걸이·카드 지갑 등 총 10개 아이템으로 출시됐다.

삼광글라스, 프랑스 '그라노블 프라이팬' 론칭

●삼광글라스가 수입·판매하는 프랑스 쿡웨어 브랜드 시트램은 강력한 코팅과 내구성을 갖춘 '그라노블 프라이팬'을 국내 론칭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주물에 화강암처럼 단단한 그라노블 코팅을 적용, 기름을 적게 사용해도 음식이 눌어붙지 않고 세척도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지름 22·28㎝ 프라이팬, 22·28㎝ 궁중팬 등 4종으로 구성됐다.

아이 성장 위한 특별강좌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병원 대회의실에서 '우리 아이 성장 프로젝트'를 주제로 특별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아이 성장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을 위해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는 ▲성장과 성조숙증(김혜순 소아청소년과 교수) ▲성장과 영양(최정임 영양과 과장) ▲성장과 운동(김지영 운동처방사)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강좌는 사전접수 없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2650-5216 /황재용기자

미즈메디병원, 유방암 평가 '1등급'

미즈메디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중소 전문병원 중 유일하게 1등급을 획득했다.

심평원은 최근 만 18세 여성에게 유방암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 185개를 대상으로 2차 유방암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전문인력 구성 여부와 진료과정 등을 평가하는 총 20개 평가 지표 중 17개를 종합해 집계됐다.

집계 결과 미즈메디병원은 12개 항목에서 100점을 획득했으며 병원의 유방암 수술 환자 입원기간은 전체 병원 평균(10일)보다 적은 9.6일이었다. 또 미즈메디병원의 진료비는 병원 평균 진료비 321만원과 동급 병원 평균 진료비 350만원보다 훨씬 적은 282만원으로 조사됐다.

윤민영 미즈메디병원 유방·갑상선암센터 과장은 "환자의 안전과 치료에 집중한 결과 이번 평가에서 1등급을 받게 됐다. 유방암 발견과 치료뿐만 아니라 유방암 환자의 생존관리에서도 평생 주치의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자유로운 옷으로 훨훨 날다

'상의원'의 고수

시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 캐릭터
말투·행동 편하게… 감정 표현 깊은 고민
"예술은 우연이 아닌 작업의 열매"

'상의원'은 조선시대 왕실의 의복을 만들었던 기관인 상의원을 무대로 한 사극영화다. 영화는 시대의 중요한 가치에 얽매인 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양반이 될 수 있다는 꿈을 안고 법도와 규칙을 지키며 묵묵히 왕실의 옷을 만들어온 어침장 조돌석(한석규), 모든 권력을 다 가졌음에도 열등감을 지우지 못하는 왕(유연석), 그런 왕의 사랑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왕비(박신혜)까지 등장인물들은 각자 나름의 이유로 자유로움을 포기한 채 살아간다. 그러나 그 속에서 유일하게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분방함을 표출하는 이가 있다. 배우 고수가 연기한 천재 디자이너 이공진이다.

"공진은 천재라기 보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유로운 사람이요. 나머지 세 인물이 신분·권력·욕망 같은 걸 중요하게 여긴다면 공진은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이상적인 인물이죠.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 관객이 공진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지만요(웃음)."

고수가 지닌 반듯한 이미지는 그 동안 출연한 작품들의 영향이다. '고지전' '초능력자'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까지 고수는 다소 무겁고 어두운 캐릭터로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줬다. 밝은 분위기였던 '반창꼬'에서도 그는 극의 무게를 담당하는 역할로 깊이를 더했다.

그런 익숙한 모습의 고수를 떠올린다면 '상의원' 속 공진은 의외의 변신이다. 조선시대의 절대적인 가치인 신분과 예의에 얽매이지 않고 늘 온화한 웃음을 짓는 공진을 보다보면 고수에게도 이런 부드럽고 편안한 모습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영화는 이토록 자유로운 공진이 조돌석과 왕과 만나면서 빚어지는 충돌과 균열, 그리고 왕비를 향한 사랑으로 이야기를 차곡차곡 쌓아나간다. 다른 인물들이 전형적인 사극 캐릭터라면 공진은 현대적인 표현도 과감히 쓰는,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인물이다. 첫 사극 도전이었음에도 고수는 다른 사극보다 말투나 행동 등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연기할 수 있었다. 캐릭터가 지닌 특수성 때문이다.

그러나 감정의 표현은 여느 작품들처럼 쉽지 않았다. 늘 허허실실 웃음을 잃지 않는 공진의 감정을 표현하는 건 '액션과 리액션'으로 이뤄지는 기존의 연기 방식과는 달라야 했다. 특히 왕비를 향한 마음은 관객에게도 최대한 들키지 않기를 바랐다. 공진이 왕비의 치수를 직접 재는 장면이 특히 그러했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장면이잖아요. 왕비를 '사모하는' 공진의 마음이 최대한 들키지 않기를 바랐어요. 들뜬 숨도 쉬지 않고 마지막에 아쉬움을 담은 눈빛을 보여주는 정도로 연기했어요. 사실 공진을 향한 왕비의 마음은 무엇인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왕비를 향한 공진의 마음은 사랑을 넘어선 사모의 감정이라 생각하며 연기했어요."

영화 후반부, 감옥에 갇힌 공진이 자신을 찾아온 조돌석의 손을 붙잡고 속마음을 드러내는 장면은 아직까지도 깊은 고민으로 남아있다. "그 한 마디를 하지 않았다면 공진이 조금 더 이상적으로 그려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하지만 100% 완벽하게 이상적인 인물은 없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정답을 잘 모르겠어요(웃음)." 캐릭터에 대한 이 깊이 있는 고민은 고수가 연기에 얼마나 열정적인 배우인지를 잘 보여준다.

예술은 타고난 재능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연습도 필요하다. 연기도 마찬가지다. 고수는 "예전에는 우연을 바랐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많은 훈련과 노력을 통해 좋은 연기자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배우는 감정과 무의식을 다루는 쉽지 않은 직업이지만 그럼에도 노력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예술은 우연이 아닌 작업의 열매"라는 그의 말에는 고수의 연기철학이 그대로 녹아있다.

올해로 고수는 데뷔 15년을 맞았다. 그는 "아직은 정리하는 시기가 아닌, 늘 도전하고 변화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매 작품 나름대로의 시도를 한 것처럼 앞으로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새해 계획도 거창하지 않다. "'상의원'이 잘 돼 새해까지 쭉쭉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은 단지 영화 홍보를 위한 빈말이 아닌 진심이 단긴 표현이다.

"자기 것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이제 슬슬 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어요. 한 시도 머무르지 않는 게 사람이라는데 그런 사람이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응원하는 것도 의미 있죠. 저도 또 다른 좋은 작품으로 돌아올 테니 응원해주세요(웃음)."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김민주(라운드테이블)·디자인/최송이

'K팝스타4' 박진영 심사평 불편하다

"전주 듣고 의식을 잃었다" "음악 관두겠다" 과장된 극찬 멘트에 시청자 '거부 반응'

가수 서인국·허각·존박·로이킴·정준영·강승윤·이하이·악동뮤지션. 이들의 공통점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낳은 스타라는 것이다.

엠넷 '슈퍼스타K'는 미국 '아메리칸 아이돌'의 포맷을 따라했다는 태생적 한계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슈퍼스타K'가 엠넷의 간판 프로그램이자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매 시즌마다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후발주자인 MBC '위대한 탄생'은 백청강·에릭남·고(故) 권리세 등의 스타를 배출했지만 지난해 시즌3를 끝으로 종영했다. SBS 'K팝스타'은 1대 우승자 박지민을 비롯해 이하이·악동뮤지션·백아연 등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 비해 여성 참가자들이 강세를 나타내며 나름의 색깔을 구축했다.

지난달 23일 시작한 'K팝스타 시즌4'에서는 예선부터 이진아·이설아 등 여성 참가자들이 두각을 드러내며 심사위원단의 칭찬 세례가 이어지고 있다.

독특한 목소리의 참가자 이진아는 자작곡 '시간아 천천히'로 본선 1라운드를 치렀다. 전주 부분에서 현란한 키보드 연주를 보여준 이진아는 갑자기 "페달이 안 나온다"며 연주를 멈췄다. 유희열·박진영 심사위원(이하 직함 생략)은 노래를 채 듣지도 않고 "합격"이라며 이진아에 대한 호감을 표했다.

이날 박진영은 이진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음악이다. 어느 별에서 왔느냐"며 "이건 심사대상이 아니다. 아티스트"라며 극찬했다. 양현석 역시 "황홀경에 갔다 온 것 같다"고 놀라워했고 유희열은 "노래를 듣는 내내 행복했다"며 "무대를 본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평했다.

지난 14일 방송된 'K팝스타 4' 2라운드 랭킹 오디션에서도 이진아는 자작곡 '마음대로'로 무대에 올랐다. 이날 역시 이진아에 대한 심사위원단의 칭찬은 끊이지 않았다.

이진아의 노래에 세 심사위원은 마치 경쟁하듯 이진아를 칭찬했다. 박진영은 "음악을 관두겠다"며 "처음 전주 부분에서 의식을 잃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유희열 역시 "내가 쓴 노래 중 이진아의 노래보다 좋은 노래는 없다"고 말했다. 양현석도 "이게 음악의 힘이다. 사람을 먹먹하게 만들고 멍청하게 만든다"고 칭찬했다.

SBS 'K팝스타 4' 심사위원단. (왼쪽부터) 양현석·박진영·유희열. /SBS 제공

그러나 일부 시청자는 세 심사위원의 칭찬 릴레이가 불편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 시청자는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K팝스타'가 아니라 박진영·양현석의 '스타'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청자는 "박진영은 참가자마다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한다"고 꼬집었다.

이진아의 독특한 목소리에 대해서는 2000년대 중반 홍대 인디 신을 휩쓸었던 허밍어반스테레오·요조·타루와 비슷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진영에게만 새롭지 음악팬들에게는 식상하다는 지적이다.

음악평론가 이대화는 14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나는 비틀즈의 전주만 듣고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며 박진영의 호들갑스러운 심사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진아의 자작곡 능력과 연주 실력이 뛰어나다는 평가에는 많은 시청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과도한 칭찬은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K팝스타'는 지난 시즌 100점 세례가 이어지며 객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100점 릴레이'는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는 점수였기 때문이다.

대중의 동의 없이 스타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심사위원단이 'K팝스타' 출신 톱스타를 원한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냉철한 심사가 필요하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윤종신, 곽진언·김필과 호흡

'월간 윤종신' 12월호 '지친 하루' 공개

가수 윤종신의 월간 프로젝트 '월간 윤종신' 12월호 '지친 하루' 앨범 커버가 공개됐다.

윤종신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14 '월간 윤종신' 12월호 '지친하루'는 김필·곽진언 두 아티스트와 함께한다"고 밝혔다.

'지친 하루' 앨범 커버 촬영 현장은 지난 5일 방송된 엠넷 '슈퍼스타K 6'의 스핀오프 프로그램 '슈퍼스타K6 비사이드'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 곽진언과 김필은 '월간 윤종신'의 히트곡인 '오르막길'을 즉흥적으로 불러 윤종신의 칭찬을 받았다.

'슈퍼스타K6'의 심사위원으로 활약했던 윤종신은 방송 내내 곽진언과 김필의 음악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애정을 표현했다. 두 사람 역시 방송을 통해 '월간 윤종신'의 팬임을 밝혔다.

한편 '지친하루'는 오는 20일 오전 0시에 발매된다. /김지민기자

월간 윤종신 2014년 12월호 '지친하루' 앨범 커버. /미스틱89

서태지 '크리스말로윈' 리믹스 콘테스트 성황

상위 10곡 선정 세미 파이널 심사 진행 우승자는 서태지 컴퍼니 통해 음원 발매

가수 서태지(사진)의 '크리스말로윈' 리믹스 콘테스트가 성황리에 마감됐다.

소속사 서태지 컴퍼니는 '크리스말로윈' 리믹스 콘테스트 응모작 중 상위 10곡을 선정해 세미파이널 심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콘테스트의 최종 우승자는 당초 18일에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우수한 실력과 개성을 갖춘 응모자들이 대거 지원해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세미파이널을 진행한 뒤 우승자를 가리게 됐다.

세미파이널에 오른 우승 후보 10명과 이들의 리믹스 곡은 서태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다. 최종 우승작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는 투표 결과와 서태지의 평가 점수를 합산해 결정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부상과 함께 서태지 컴퍼니를 통한 정식 음원 발매의 기회가 주어진다.

소속사는 "한 달 동안 다양한 스타일과 장르의 '크리스말로윈' 리믹스가 약 300곡정도 탄생했다"며 "이번 콘테스트에 재능 넘치는 뮤지션들이 많이 참여해 우리 대중음악의 무궁한 잠재력과 가능성, 우수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앞서 서태지는 지난달 14일 정규 9집 타이틀곡 '크리스말로윈'의 스템 파일을 무료로 공개하고 리믹스 콘테스트를 열었다.

스템 파일은 한 곡의 노래를 구성하는 보컬·기타·신스·드럼 등 각각의 음원 소스를 일컫는 음악 용어다. 음원 소스는 다양한 형태의 리믹스를 통해 재탄생돼 새로운 음악의 밑거름이 된다. /김지민기자

이준·천둥 엠블랙 떠난다

지난달 콘서트 끝으로 계약 종료

보이그룹 엠블랙 멤버 이준(본명 이창선·사진 왼쪽)과 천둥(본명 박상현·오른쪽)이 그룹을 떠나게 됐다.

이준과 천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솔의 나형진 담당변호사는 두 사람과 소속사 제이튠캠프와의 전속계약이 지난달에 열린 '커튼콜'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모두 종료됐다고 16일 밝혔다.

나형진 변호사에 따르면 이준은 현재 출연 중인 MBC 수목드라마 '미스터백' 촬영에만 집중할 예정이다. 천둥은 당분간 음악 공부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준과 천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5년 동안 아낌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준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욱 더 성숙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민기자

우리의 혁명은 숲에서 시작된다
ROBIN HOOD
DAS MUSICAL
로빈훗
2015.1.23-3.29 디큐브아트센터
유준상 서영주 이건명 엄기준 조순창 박진우 박성환 규현 양요섭 서지영 김아선 김여진 다나 외
프로듀서 김선미 연출 왕용범 음악감독 이성준 안무 서병구 조명디자인 민경수 무대디자인 서숙진 음향디자인 권도경 영상디자인 송승규 의상디자인 한정임 분장디자인 양희선 소품디자인 김상희
Music : MARTIN DOEPKE Book : ANDREA FRIEDRICHS & HANS HOLZBRECHER Lyrics : ELKE SCHLIMBACH & GRANT STEVENS Orchestrations : HUMMIE MAN & MARTIN DOEPKE
Producer Original Production : ANDREA FRIEDRICHS Worldwide General Management : WILLEM METZ MANAGEMENT
WMM
주최 SBS 투자 하나투어 ISU 이수창업투자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KIBO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YES24.COM 티켓 (1544-6399) 하나 Free 티켓 (1566-6668)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CLIP service (1577-3363) 홍보 SHOWHOLIC

'힐러' 촬영 비하인드 "부상 조용히 티 내"

박민영이 춤추는 이유는? "9회에서 등장"
유지태 "선후배 조화로 전세대 공감할 듯"

KBS2 월화드라마 '힐러' 유지태·박민영·지창욱(왼쪽부터). /KBS 제공

배우 박민영이 KBS2 월화드라마 '힐러' 촬영 중 부상을 당한 일화를 공개했다.

16일 경기도 파주 세트장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창욱과 박민영은 액션 연기를 하면서 위험했던 상황을 이야기했다.

지창욱은 이날 "액션은 많지만 아직 크게 다친 적이 없다"며 "대역과 액션 팀이 잘 도와준다. 위험할 때가 있지만 앞으로도 다치면 안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민영은 "정작 액션을 하는 지창욱은 안 다치는데 내가 맨날 다친다"며 "저번 촬영에서는 옆에 쭈그려 있다가 발로 맞았다"고 당시 상황을 추억했다. 그는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지창욱이 아니라 내가 다치니까 창피해서 어디다 이야기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창욱은 "그때 정말 놀랐다"며 "아플 텐데 조용히 티를 내더라"며 웃었다.

지창욱은 '힐러'에서 업계 최고의 심부름꾼인 코드명 '힐러' 서정후 역을 맡았다. 블랙 패션과 스마트 기기로 무장한 모습이 미스터리한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다. 민자(김미경)와 긴밀하게 교류하며 미션을 해결하는 모습이 극의 긴장감을 조성한다.

박민영이 분한 채영신은 특종을 위해서라면 변장·잠복·잠입도 마다하지 않는 인터넷 신문 연예부 기자다. 그는 작품에서 춤과 노래를 즐기는 인물이기도 하다.

박민영은 "9회에는 채영신이 춤과 노래를 즐기는 이유가 나온다"며 "알고 나면 이해가 될 텐데 지금은 시청자가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고 향후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흥녀'라고 부르기 때문에 춤을 추면서 어려움은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유지태, 지창욱도 췄으면 좋겠다. 주창욱이 하는 뮤지컬을 보러 갔다. 노래는 잘하는데 춤이 별로였다. 그래서 지창욱의 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힐러'는 정치나 사회 정의 같은 건 그저 재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하며 살던 청춘들이 부모세대가 남겨놓은 세상과 대결하는 액션 로맨스 드라마다. 검사 이야기를 다루는 MBC '오만과 편견', SBS '펀치'와 동시간대 경쟁을 하고 있다.

세 드라마 모두 비슷한 느낌을 보인다는 지적에 유지태는 "다이내믹하다는 점이 '힐러'만의 특색"이라며 "선후배의 조화가 무게 중심을 잡고 있다. 세대를 걸쳐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힐러'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김상중·김태우 '징비록' 출연

내년 2월 방영… "진정한 리더십 조명"

배우 김상중(사진 오른쪽)과 김태우(왼쪽)가 KBS1 대하드라마 '징비록'에 출연한다.

김상중은 '징비록'에서 서애 류성룡 역을 맡았다. 류성룡은 '징비록'의 저자로 임진왜란 7년 동안 도체찰사와 영의정을 지내면서 실질적으로 전란을 지휘한 인물이다. 김상중은 다수의 작품을 통해 온화한 인상과 무게감 있는 음성으로 선 굵은 연기를 해 '징비록'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김태우는 선조로 출연한다. 선조는 조선의 14대 왕으로 조선 왕조 최초 방계혈통으로서 정통성 콤플렉스를 지니고 있다. 명민하지만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임진왜란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김태우는 영화 '관상'과 '해적:바다로 간 산적',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등에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감정 연기로 시선을 끈 바 있다.

'징비록'의 김상휘 감독은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조선 최대 위기였던 임진왜란을 통해 유비무환의 중요성과 국난 극복의 지혜를 얻고자 한다"며 "서애 류성룡의 혁신적인 개혁 정책을 통해 오늘날 정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과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고 기획 의도를 전했다.

'징비록'은 내년 2월14일 첫 방송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jeonhj89@

'선암여고 탐정단'의 낯선 그들

여운혁 PD "진지희 빼고 다 얼굴 보고 뽑아"
"똑똑한 친구들, 종영 후 캐스팅 제의 많을 것"

JTBC의 새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이 베일을 벗었다.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드라마는 왕따·자살·성적 지상주의 등 청소년 사회 문제를 유머 코드와 밝은 연출로 순화시킬 전망이다.

제작을 맡은 여운혁 PD는 진지희·강민아·혜리·스테파니 리·이민지·김민준·장기용·한예준 등 출연진과 함께 16일 오후 서울시 중구 호암아트홀에서 제작발표회를 가졌다.

'선암여고 탐정단'은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 '뉴 논스톱' 등을 만든 예능 출신 여운혁 감독의 드라마 도전으로 기획 단계부터 화제를 모았다. 신예 배우와 연기파 배우들도 합류해 시청자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대중에게 다소 낯선 배우들이 대거 발탁됐다는 것이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jtbc 미니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배우 이혜리(왼쪽부터), 강민아, 진지희, 이민지, 스테파니 리가 포토타임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여운혁 PD는 "진지희 빼고는 모두 외모를 보고 뽑았다"고 캐스팅 비화를 공개했다. 그는 "진지희는 외모에 연기력까지 갖췄다. '내가 연출을 맡아도 되나' 싶을 정도"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최근 인기 절정인 걸스데이의 혜리도 출연한다. 여운혁 PD는 "혜리는 항상 에너지가 넘친다. 이번 드라마에서 첫 캐스팅 확정은 혜리였다. 이 친구를 뽑지 않으면 혼나겠다 싶을 정도로 에너지에 압도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파니 리에 대해서는 "화장품 CF로 봤는데 이상형이라서 뽑았다. 드라마에서는 어눌하고 미련하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다. 교포 시민권자인데 한국말을 빨리 알아 들어 놀랐다"고 전했다. 또한 강민아에 대해서는 "드라마에서 못생긴 얼굴로 나와 미안한 마음"이라며 "다수의 작품에서 연기력을 검증받은 배우라 큰 걱정 없는 친구"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여운혁 PD는 "이민지는 방송에서 찾아보기 힘든 얼굴인데 다수의 독립영화에서 활약하며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다. 개성 있는 배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자 배우들인 장기용, 한예준에 대해서는 "솔직히 외모 보고 뽑았다. 연기는 아직 멀었지만 충분히 좋은 연기자로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 원빈·송승헌·소지섭 등도 젊을 때 봤는데 당시 그 친구들보다 낫다"고 했다.

'선암여고탐정단'은 어른들이 정해준 기준에 의구심을 품은 여고생들이 의문의 사건들을 해결하며 겪는 과정을 그린 블랙 코미디 청춘 학원물이다.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 JTBC를 통해 방송된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새해 장식 이승기·문채원 로맨스 '관심'

'오늘의 연애' 제작발표회

이승기 첫 스크린 도전 "기쁘고 영광이죠"
문채원 "썸타는 사람과 키스까지" 고백도

2015년 새해에는 두 선남선녀의 로맨스가 스크린을 화사하게 장식할 전망이다. 이승기, 문채원 주연의 영화 '오늘의 연애'(감독 박진표)가 개봉하기 때문이다.

16일 오전 서울 CGV 압구정에서는 '오늘의 연애' 제작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진표 감독과 주연 배우 이승기, 문채원이 참석했다.

이승기는 이번 영화로 스크린 첫 주연에 도전한다. 착하고 바르고 성실한 초등학교 교사지만 연애에서는 여자가 원하는대로 해주기만 하고 차이기 일쑤인 남자 준수 역을 맡았다.

"영화는 처음이라 긴장된다"고 말문을 연 그는 "이번 영화가 스크린 데뷔작이다. 영화를 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꿈만 꿨는데 현실이 돼 기쁘고 영광"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번 영화에서 이승기는 문채원과 함께 로맨스 연기를 펼쳤다. 문채원은 미모의 기상 캐스터로 연애에서는 애매하게 여지만 주고 결정적일 때 발을 빼는 여자 현우를 연기했다. 영화는 18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두 남녀의 사랑과 우정을 통해 '썸'만 탈 뿐 사랑은 어려워진 오늘날의 연애를 그린다.

로맨스 영화인만큼 키스신도 빠질 수 없을 터. 이승기는 "문채원과의 키스신은 격했다"고 말해 호기심을 자아냈다.

그는 "키스신이 두 번 나온다. 드라마보다는 격하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박진표 감독은 "키스신 찍을 때 내가 질투날 정도로 연기해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준비를 열심히 해와서 그런지 키스신이 잘 나왔다"고 촬영 당시의 에피소드를 전했다.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CGV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오늘의 연애'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배우 이승기, 문채원, 박진표 감독이 포토타임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문채원은 자신의 연애관을 밝혔다. '썸'타는 사람과 무엇까지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그는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키스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솔직하게 답했다. 또한 이승기, 이서진, 정준영 중 이상형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친구 같이 편한 사람이 좋다"며 이승기를 꼽았다.

박진표 감독은 '너는 내 운명' '내 사랑 내 곁에' 등 진한 멜로영화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다. '오늘의 연애'는 6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박 감독은 "이승기는 스크린 데뷔작이지만 배우로서는 10년 이상의 내공을 가지고 있다. 첫 데뷔 영화를 함께 했다는 것으로 영광"이라고 말했다. 문채원에 대해서는 "꼭 함께 해보고 싶은 여배우였다"고 설명했다.

새해 첫 로맨스 영화인 '오늘의 연애'는 내년 1월15일 개봉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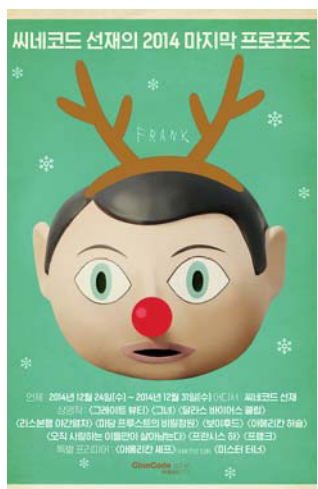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올해 놓친 영화 다시 본다

씨네코드 선재 '2014 마지막 프로포즈' 24일부터

예술영화 전용관 씨네코드 선재는 올해 놓친 영화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획전 '2014 마지막 프로포즈'를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

'마지막 프로포즈' 기획전은 한 해 개봉한 영화들 중 다시 보고 싶은 작품이나 상영 기간이 짧아 극장에서 놓쳐 아쉬움이 남는 작품들을 모아 상영하는 행사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했다.

올해는 씨네코드 선재를 방문한 관객들이 직접 투표한 작품과

씨네코드 선재의 협력 업체인 정독도서관과 민음사에서 선정한 작품들로 상영작을 갖췄다.

'그레이트 뷰티' '프랭크'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리스본행 야간열차' '그녀' '프란시스 하'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 '아메리칸 허슬' '보이후드'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등이 상영될 예정이다.

또한 30일 오후 8시에는 내년 8일 개봉 예정인 '아메리칸 셰프'를 상영한다. 일류 레스토랑의 셰프가 쿠바 샌드위치 푸드트럭에 도전한다는 내용의 코미디 영화다. 31일에는 내년 1월22일 개봉을 앞둔 마이크 리 감독의 신작 '미스터 터너'도 상영한다. 문의: 02)730-3200 /장병호기자

'명탐정 홍길동' 촬영 시동

'늑대소년' 감독 신작…이제훈·김성균·고아라 출연

영화 '늑대소년'의 조성희 감독의 신작 '명탐정 홍길동'이 촬영을 시작했다.

'명탐정 홍길동'은 고전 소설 속 주인공인 의적 홍길동을 현대를 배경으로 어둠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사립탐정 캐릭터로 탈바꿈시킨 작품이다. 이제훈이 제대 후 첫 영화로 선택해 화제를 모았다.

이제훈은 최근 첫 촬영을 마친 뒤 "처음 도전하는 장르에 이채로운 비주얼과 색다른 캐릭터들로 가득한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며 "평소 조성희 감독의 작품을 인상 깊게 봐왔는데 함께 작업하게 돼 더욱 설렌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성희 감독은 "이제훈은 차가움과 순수함이 공존하는 탐정 홍길동 그 자체"라고 이제훈의 연기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번 영화에는 이제훈 외에도 김성균·고아라·박근형·정성화 등이 함께 한다.

김성균은 홍길동(이제훈)을 추적하는 의문의 남자 강성일 역을, 고아라는 홍길동과 함께 일하는 활빈당의 총책임자 황회장 역을 맡았다. 박근형은 홍길동이 20년 동안 유일하게 찾지 못한 한 사람 김병덕을, 정성화는 홍길도에게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여관주인으로 출연한다.

'명탐정 홍길동'은 내년 중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전수경, 홍종현 엄마 됐다

'경찰가족' 합류 '뇌쇄적 중년 캐릭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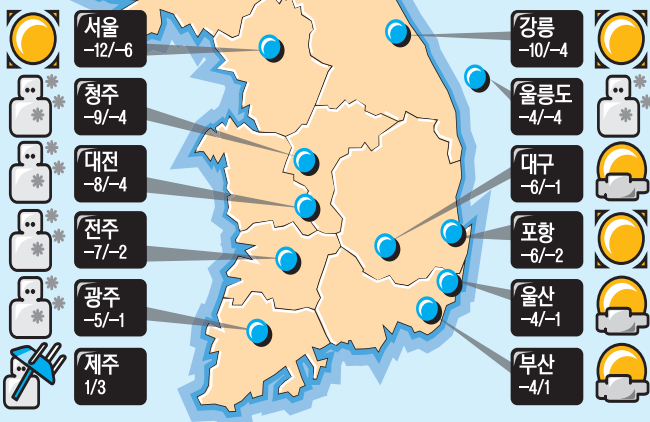
배우 전수경(사진)이 영화 '경찰가족'에 홍종현의 엄마로 합류한다.

'경찰가족'에서 전수경은 위조사기로 신의 경지에 오른 중년 아줌마이자 남자 주인공 철수(홍종현)의 엄마인 조강자 역으로 출연한다. 특유의 개성 있는 연기를 보여줄 예정이다.

전수경은 "이렇게 좋은 작품을 통해 멋진 배우들과 함께 호흡하게 돼 기대가 크다. 특히 홍종현의 엄마 역할을 맡아 더욱 기쁘다. 조강자 역할을 통해 뇌쇄적이고 매력적인 중년 캐릭터를 보여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수경은 지난 10월 종영한 MBC 주말드라마 '마마'에서 카리스마 있는 권도희 역으로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줬다. 현재는 뮤지컬 '시카고'와 '라카지'에 출연 중이다.

'경찰가족'은 범죄조직 집안의 아들 철수와 경찰 집안의 딸 영희(진세연)의 좌충우돌 결혼 소동을 그리는 가족 코미디 영화다.

/장병호기자

술을 마실 때는 물과 함께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빈 속에 마시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하면서 마시는 습관을 갖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감기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5		4		
			8					3
	4		3					8
	9	6	7				8	1
	2						7	
7	3				1	6	4	
1					8		2	
6					5			
		4		3				6

			2			5	1	
	1	8						
					9	7	6	8
3			1	6				2
4				9	7			3
8	6	3	7					
						8	2	
	4	5			6			

스도쿠 정답

3	1	8	6	5	2	4	9	7
2	6	9	8	7	4	1	5	3
5	4	7	3	1	9	2	6	8
4	9	6	7	2	3	5	8	1
8	2	1	5	4	6	3	7	9
7	3	5	9	8	1	6	4	2
1	7	3	4	6	8	9	2	5
6	8	2	1	9	5	7	3	4
9	5	4	2	3	7	8	1	6

6	7	4	2	3	8	5	1	9
9	1	8	6	7	5	2	3	4
5	3	2	4	1	9	7	6	8
3	5	7	1	6	4	9	8	2
1	8	9	3	5	2	6	4	7
4	2	6	8	9	7	1	5	3
8	6	3	7	2	1	4	9	5
7	9	1	5	4	3	8	2	6
2	4	5	9	8	6	3	7	1

문제 제공=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캣우먼

임경선 칼럼니스트
askcatwoman@empal.com

남친에게 차인 상처 잊혀지지 않아 실연은 성장통, 사랑의지 키우세요

Q Hey 캣우먼!
청소년 시절 남자친구에게 차였던 기억이 남아 아직도 마음이 아플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된 후 연락해 만났지만 전 여전히 그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자와는 그렇게 잘 지내는 편이 아니어서 나 자신이 인기 없는 여자라는 생각, 사랑 받아야 할 여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성에게 사랑받는 사람을 보면 제가 못났다는 생각도 하게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저의 콤플렉스가 원인인가요? /제주감귤

A Hey 제주감귤!
청소년 시절의 아픈 실연은 성장통을 겪으면서 누구나 심장 한 구석에 아린 추억으로 남기면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그 시절을 현실로 가져오질 않습니다. 환상이 깨진 후의 구질구질함을 다신 겪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데도 당신이 성인이 돼 다시 연락해 만났다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오로지 그 남자의 인정을 통해서만 회복하겠다는 심보입니다. 하지만 단단한 자존감은 타인의 사랑이나 인정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의존은 타인에게 휘둘리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쁘고 싹싹한 사람? 미인도 아니고 성격이 내성적이어도 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인기 있고 사랑 받는 것보다 내가 상처받더라도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더 깊은 충족감을 줍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야 한다지만 예전 사람과 겪은 아픔을 새 사람과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 사이 공백을 두고 나를 직면해야 합니다. '어차피 나는 안 될 거야'라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킬 동력도 없는 상태로 세상 탓, 남 탓할 거리만 찾는 당신은 그런 '생각'만 하니까 문제인 거지요. 나를 바꿀 '행동'을 일으켜야 자유로워지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겠지요. /캣우먼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직업·집안 평탄, 남자 인연이 없어요 눈높이 낮추고 직장생활 충실하게

Q 콩별 여자 84년 음력 3월 13일 13시 3분

지금까지는 직업, 집안 등 전혀 문제가 없이 평탄하게 살아왔습니다만 이상하게 남자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84년 음력 3월 13일생 13시 3분 여자입니다. 제가 호감을 갖고 잘해보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고, 나쁜 남자들에게 많이 당해서 이젠 결혼을 못하는 사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저 과연 결혼 할 수 있을까요? 하게 된다면 언제쯤 인연이 나타날까요?

A 남녀 보편적 관점에서 볼 때 결혼을 하고 싶은 때는 친구의 결혼식을 갔을 때, 예쁜 아가들을 보았을 때, 직장생활이 힘들고 삶이 지칠 때라고 합니다. 일부 결혼을 힘든 현실을 피하기 위한 대책으로 생각 할 수도 있는데 결혼이란 책임이라는 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헤쳐 나가야 할 또 다른 삶의 도전입니다. 사주 속에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있고 때로는 배우자도 어떤 모습인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귀하의 사주를 보면 '화로에 담긴 불'과 같은 형상으로 낮에는 쇠를 녹여 소리를 내는 악기나 식기를 만들어 내는 예술적인 재능을 함유하며 밤에는 방안을 밝히는 등잔불이니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존경받기를 바라고 또한 인기를 독점하고 싶은 성향이 강하여 질투심과 자존심이 남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좋고 인물도 좋은 화려한 남자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귀하의 사주내의 남편은 특별한 직업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6년까지 남자와 인연이 약하여 상대가 때로는 귀하의 눈에는 차지 않으니 결혼이 성사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5세가 되면 소띠와 연분이 되지만 늦은 나이로 초조해질 수 있으니 2015년에는 만날 수 있도록 힘쓰면서 직장생활에 충실하세요. 당분간 이성운세는 미약하지만 감사하게도 재물운은 뜻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수혜를 받는 횡재수가 존재합니다. 한 가지라도 복이 존재하니 마음을 따뜻하게 갖도록 하고 막연한 사랑을 갈구하지 않도록 목표를 정하고 신념을 갖으십시오. 2014년 연말에 갈등과 번뇌로 삼각관계의 사랑은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2월 17일 (음 10월 26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60년생** 가정이 화목하니 행복온도 쑥~. **72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84년생** 새로 시작한 일은 흥미도 떨어져 고민~.

49년생 욕심 부려서 근심 만들지 마라. **61년생** 걱정했던 장애물은 없어진다. **73년생** 막말은 또 다른 막말 부르는 법~. **85년생** 의도한 대로 일은 풀린다.

50년생 새 일은 시험대 오른다. **62년생** 일이 잘 풀릴수록 더욱 겸손할 것. **74년생** 공들인 일은 차질이 생긴다. **86년생** 협조할 땐 화끈하게 하라.

51년생 급해도 초강수는 금물~. **63년생** 자녀 달달 볶으면 역효과 크다. **75년생** 무능한 사람이 화를 내는 법~. **87년생** 서두르면 시말서 쓸 일 만든다.

52년생 모처럼 여유를 즐긴다. **64년생** 냉정한 현실 잘 파악할 것. **76년생** 헐값에 자존심 팔면 두고두고 후회한다. **88년생** 반대하는 사람은 대화로 설득하라.

53년생 투자자는 리스크 관리 신경 써라. **65년생** 희망은 인생 최고 히든카드다. **77년생** 고통과 굴욕을 넘어서라. **89년생** 데이트 나가면 웃음꽃 핀다.

42년생 응원은 자녀에 힘이 된다. **54년생** 물건이 자녀를 보니 흐뭇~. **66년생** 애물단지가 황금돼지 된 격이다. **78년생** 듣기 싫은 소리 들어도 참아라.

43년생 기쁨의 순간 가족과 함께 하라. **55년생** 뜻밖의 급한 일이 생긴다. **67년생** 남에 일에 끼어들지 마라. **79년생**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꿈을 꾼다.

44년생 배우자와 틈이 생긴다. **56년생** 급할수록 차분하게 생각할 것. **68년생** 편안한 부하가 있어 즐겁다. **80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 숙이는 법~.

45년생 돈으로 실수 덮으려는 생각 버려라. **57년생** 오늘 눈물 나중에 큰 힘이 된다. **69년생** 어려우면 도움 요청하라. **81년생** 꿈이 확실하면 여론에 안 흔들린다.

46년생 어정쩡하면 역습 받는다. **58년생** 뜻을 이루려면 지분 내놔라. **70년생** 쌈짓돈이 없어져 애로가 많다. **82년생** 상상대로 일이 풀려서 야호~.

47년생 꼬인 일은 묘안부터 찾아라. **59년생** 해묵은 걱정은 해소된다. **71년생** 어려울 때 잘해야 진짜 실력~. **83년생** 마음이 혹하는 일감이 생긴다.

리오넬 메시

세르히오 아구에로

챔피언스리그 16강 '메시 vs 아구에로'

다시 만난 바르셀로나·맨시티…도발과 자존심 대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진표가 공개됐다.

15일(한국시간) 오후 8시 스위스 니용에서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조추첨식이 열렸다. 16강에서 만난 두 팀은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두 차례 경기를 갖게 된다.

16강 대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경기는 FC 바르셀로나와 맨체스터시티 FC(이하 맨시티)의 경기다. 이 두팀은 지난 시즌에도 16강에서 만났다. 바르셀로나가 두 경기 모두 이기고 8강에 안착했다.

맨시티는 이번 시즌 설욕을 노리고 있다. 지난 조별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AS 로마를 극적으로 이기고 16강에 오른 맨시티는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각오다. 프리미어리그와 프리메라리가에서 각각 첼시,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두 팀은 자존심을 건 한 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양팀의 핵심 공격수는 모두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활약 중인 리오넬 메시(27·바르셀로나)와 세르히오 아구에로(26·맨체스터시티)다. 메시는 15일 16강 조추첨이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내 친구 아구에로를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 내가 늘 이겨왔지만 이번 라운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지켜보자"며 동료를 도발했다. 이 둘의 화려한 골 폭풍도 기대해 볼만 하다.

여기에 메시의 득점 신기록 행진이 이어질지도 관전 포인트다. 메시는 챔피언스리그에서 현재 75호 골을 넣으며 역대 최다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FIFA 발롱도르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는 16강에서 비교적 약체로 평가되는 FC 샬케 04와 맞붙어 비교적 안도할 수 있다. 72호골을 터뜨리며 챔피언스리그 득점 기록 2위를 달리고 있는 호날두가 샬케와의 2연전에서 세 골 이상을 몰아 넣게 되면 메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도 있다.

바르셀로나와 맨시티의 16강 1차전은 내년 2월25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2차전은 내년 3월1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펼쳐진다.

한편 챔피언스리그 16강은 조별리그에서 1,2위를 차지한 팀이 올랐다. 조 1위 팀은 다른 조 2위 팀과 격돌하게 되며 조별리그에서 한 조에 속했던 팀은 16강에서 만나지 않는다. 또 소속 리그가 같은 팀들끼리도 16강전에서 붙지 않는다. 손흥민의 레버쿠젠은 AT마드리드와 만난다. 파리 생제르망과 첼시, 유벤투스와 도르트문트, 샤흐타르와 뮌헨, 아스날과 AS 모나코, 바젤과 포르투가 나란히 16강 경기를 치른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아기레 日 감독 승부조작 처벌 위기

프리메라리가 사라고사 시절 13억원 건넨 혐의

하비에르 아기레(56·멕시코·사진) 일본 축구 대표팀 감독이 승부조작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몰렸다.

16일(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아기레 감독은 스페인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2011년 승부조작 사건 공소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 일본 산케이스포츠는 "스페인 검찰이 아기레 대표팀 감독을 승부조작 의혹과 관련해 15일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010-2011시즌 사라고사와 레반테의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30라운드 경기에서 승부조작 정황을 잡았다. 아기레 감독이 이끌던 사라고사가 레반테 선수들에게 이 경기에서 져주는 대가로 96만5000 유로(약 13억원)를 건넸다는 혐의다. 사라고사는 그 시즌에 레반테를 2-1로 이긴 덕분에 2부 리그 강등을 피할 수 있었다.

검찰은 아기레 감독을 포함한 임원 다수와 선수 18명 등을 피의자로 적시한 공소장을 스페인 발렌시아 법원에 제출했다. 선수 중에는 사라고사에서 활약한 미드필더 안데르 에레라(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가브리엘 페르난데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포함됐다.

일본축구협회는 다음 달 아시안컵을 코앞에 두고 아기레 감독의 승부조작 정황이 구체화하자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 아기레 감독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때 자신은 승부조작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협회에 해명했다.

산케이스포츠는 "향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스페인 발렌시아 법원이 아기레 감독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며 "1월9일 개막하는 호주아시안컵을 직접 지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해임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매체는 아기레 감독의 변호인의 말을 인용 "법원 출석은 이르면 내년 2월께 이뤄질 것"이라며 "아시안컵을 이끄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현지를 비롯해 그를 대하는 여론이 안 좋아질 것은 분명하다.

일본은 아기레 감독에게 신뢰를 보냈고 이에 따라 아시안컵에 출전할 국가대표 23명을 전날 선발해 발표했다. 호주에서 열리는 올해 대회에서 일본은 2011년에 획득한 타이틀을 지키고 다섯 번째 우승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기레 감독은 올해 7월부터 일본 대표팀을 맡고 있다.

/김학철기자

윤석영 QPR 주전 굳히나

9경기 연속 선발 출전… 에버턴과는 1-3 패

한국 축구 대표팀의 왼쪽 풀백 윤석영(사진)이 9경기 연속 선발로 나섰다. 그러나 소속팀 퀸스파크 레인저스(QPR)는 에버턴에 완패하며 강등권 탈출에 실패했다.

QPR는 16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에버턴과의 201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에서 1-3으로 졌다.

이날 경기에서 윤석영은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다. 하지만 팀의 수비라인이 3점이나 허용해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지난 10월19일 리버풀전(2-3패)을 시작으로 9경기 연속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팀의 주전 왼쪽 풀백으로 자리를 잡았다.

QPR는 전반 33분 에버턴의 로스 바클리에게 선제골을 내주었다. 이어 전반 43분 케빈 미랄라스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사실상 패배를 예감했다.

후반 8분에는 스티븐 네이스미스에게 헤딩 쐐기골을 내줬다. 후반 35분 보비 자모라가 추격골을 터트렸지만 승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패배로 QPR는 4승2무10패(승점 14)를 기록하며 강등권인 18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

프로농구 전적 16일

팀	1Q	2Q	3Q	4Q	합계
전자랜드	17	18	16	15	**66**
삼성	17	9	24	25	**75**

프로배구 전적 16일

우리카드	2	3	LIG손해보험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100%
천연암반수
처음
처럼
부드러운
17.5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